



[마켓·부동산] 여의도 재건축단지 '통개발' 박원순 플랜에 매출 '썩', 집값 '썩' 08



Economy

코스피	2310.90 (0.00)	코스닥	827.89 (0.00)
금리 (국고채 3년)	2.11 (+0.02)	환율 (원·달러)	1123.50 (-2.40) (13일)

## 노조 고용세습·임원 추천제 등 불공정 채용

# 고용절벽 조장 '기울어진 운동장'

### 실패의 경제 렌트시킹과 집단이기 (시대추구)

#### <1>고용세습

#1. 6월 취업자 수는 2712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 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의 고용한파다. #2. 연초부터 이어진 고용한파에 취업준비생 마음을 더 얼어붙게 하는 소식은 금융권에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면 서류 전형은 무사통과시켜주는 임직원 추천제라는 '관행' 적인 채용비리가 만연했다. #3. '관행'이 아니라 고용세습이 기업과 노조의 계약사항으로 버젓이 존재한다. 올해 1분기 기준 여전히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29곳에 달한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할 일 자리를 놓고 대물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이다. 특혜와 같은 시대추구(rent-seeking·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 행위라는 지적이다. 노벨 경제학상 단골 후보였던 윌리엄 보몰(W. Baumol)은 "지대추구(rent-seeking)가 만연하면 그사회는 곧 쇠퇴한다"고 경고



### 국내 취업자 증가수 '최악' 5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

### 기업 29곳, 고용세습 여전 귀족노조 출현 '경기 쇠퇴' 취업 준비생 희망도 빼앗아

한 바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기준으로 고용세습 단합이 유지되고 있는 사업장은 금호타이어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쌍용자동차 등 29곳에 달한다.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고용 세습은 불법이다. 고용정책기본법·직업안정법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연령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노조와 사측, 양자 간의 일이나 구직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고용

세습은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라 단체협약 뒤에서 명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우선·특별채용 단합협약을 체결한 기업이 130개였음을 감안하면 많이 줄었다. 아직 남아 있는 곳은 강성 '귀족노조'가 힘을 발휘하는 제조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사회적 비판에도 고용세습이 개선될 여지가 현저히 낮은 곳들이다.

무임승차에 따른 생산성 악화는 결국 공장폐쇄 등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떨어진 가동률에도 기존의 임금과 대우를 고집하면서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아예 문을 닫았다. 한국지엠은 단체협약에 사측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노조원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는 고용세습 조항이 들어 있는 대표적인 곳 중 한 곳이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20대 실업자는 사상 최초로 40만명을 넘고, 올해 들어서는 취업자수가 늘지 않는 고용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제조업 취업이 줄고 전문직 등 이른바 버젓한 일자리가 줄은 탓이다. 좁아진 문에 고용세습이나 임직원 추천제 등을 감안하면 취업 준비생에게 버젓한 일자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출입이 아예 금지된 운동장이다.

고용만 놓고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 달까지 취업자 증가수는 5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이하를 기록했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0만명 이하를 기록한 이후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고용 부진이다.

은행권에서는 임직원 추천제 등을 모두 금지하는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금융투자나 보험 등 다른 금융 업권에서도 이 모범규준을 적용토록할 계획이다.

반면 여전히 고용세습을 담은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간 자율협약이 원칙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社告



**2018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  
**북방경협 바람 타고 동북아 물류 새 시대**

메트로경제가 오는 8월 29일(수)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지하1층)에서 동북아 물류 새시대를 주제로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을 개최합니다.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테마로 열리는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 포럼은 최근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새롭게 주목받는 동북아물류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물류의 역할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이 본격화하면 두 나라의 철도가 연결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철도와도 연결돼 유럽까지 철도로 이어지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나라가 됩니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와 철도를 비롯한 물류 인프라 협력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대통령 산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와 한러기업협회 등에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남북의 경제협력이 단순히 남과 북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한반도가 글로벌 물류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이란 주제의 제3회 국제 운송·물류혁신포럼이 한반도 중심의 동북아물류에 관심을 끌어모아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메트로경제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주 제 : 북방경협 바람타고 동북아물류 새시대 활짝
- 일 시 : 2018년 8월 29일(수) 09~12시(오찬 제공)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지하 1층)
- 주 최 : 메트로경제
- 문 의 : (02) 721-9826
-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 LG, 구광모 체제 새판짜기... 지주사 3인 등기이사로

(구광모 회장, 권영수 부회장, 김홍기 재정팀장)

### LG·LG유플러스 이사회 주력 계열사 경영자 교체 신성장동력 발굴에 주력

출범 후 보름 정도 지난 LG그룹 구광모 회장 체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지주회사 팀장급 인사에 이어 주력 계열사 경영자를 맞바꾸는 인사까지 단행되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주)LG와 LG유플러스는 16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대표이사 부회장을 서로 교체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하현희 (주)LG 부회장의 자리를 서로 맞바꾸는 인사가 확정되면 구 회장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첫번째 공식 발표가 된다.

업계에서는 8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인사절차가 마무리 되면 LG는 구 회장, 권 부회장, 김홍기 재정팀장(전무) 등 3인 등기이사 체제로 전환된다는 의미라고 평가한다.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LG그룹



LG그룹 구광모 회장. /LG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뉴스1

의 지주회사인 (주)LG의 인사팀장에 이명관 LG화학 부사장이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관계자는 구광모 회장이 (주)LG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달 말 LG화학 최고인사책임자(CHO)인 이 부사장이 (주)LG의 인사팀장으로 겸임 발령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1987년 럭키에 입사해서 그룹 구조조정본부 인사지원팀을 거쳐 (주)LG CNS 인사·경영지원부부장, (주)LG 인사팀장(부사장) 등을 거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지주사 인사팀장 교체에

대해 구 회장이 빠른 인적 개편을 통해 자기 색깔의 경영을 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많다. 이와 함께 이번 인사가 '구광모 회장 리더십 강화'를 위한 대대적 조직 개편의 신호탄이라 해석한다.

그룹 전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팀장과 그룹 2인자인 지주사 공동대표를 교체한 것은 새 경영체 구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연말 그룹 사장단과 임원 인사에선 보다 큰 폭의 인력 개편이 예상된다라는 의견도 있다.

구 회장이 권 부회장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재계는 구광모 체제를 조속히 안착시켜 지상과제인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본다.

권 부회장은 지난 1979년 LG전자에 입사한 이후 LG디스플레이 사장과 LG화학 사장(전지사업본부장)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을 맡았다. 권 부회장은 새로운 분야 파악을 위해 전문서적을 읽고 빠르게 지식을 늘리며 장악력을 높이는 스타일이다. LG디스플레이, LG화학 부임 초 엄청난 공부를 했다는 말도 전해진다. 또한 공격적인 업무 스타일로 신규 사업 투자와 구조조정에 능하다는 특징도 있다.

권 부회장은 1999년 LG전자에서 근무할 때 네덜란드 필립스에서 16억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해 LG디스플레이의 전신인 LG필립스 LCD출범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 (5면에 계속)

/안병도 기자 catchrod@

##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일파만파 소상공인 '모라토리엄' 선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내년도 3조원의 예산을 풀어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책 등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당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거세게 반발하는 쪽은 사용자 측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다. 이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고 가격 인상과 동맹휴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즉각 성명을 내 "정당성을 상실한 일방적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을 통해



"이미 영세기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최저임금을 추가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비난했다. <2면에 계속>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국세청 조사4국, 한국타이어 고강도 세무조사 3대 쟁점

# 1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 2 현식-현범 오너3세 승계

# 3 티스테이션, 골목상권 위협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 총괄 부회장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국내 1위 타이어 회사인 한국타이어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적폐 청산'부터 '일감몰아주기 타파'까지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의 칼' 조사4국 투입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인 조현범 사장과 사돈 조양래 회장을 겨냥했다는 해석부터 계열사 신양관광개발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와 지나친 상표권 사용료, 조현범 사장과 조양래 회장 등 오너일가의 탈세 의혹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될 것이라는 관측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알고 있으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국세청의 핵심' 조사4국이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어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

조사4국은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비정기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특히 이들은 기획·심층 수사와 조사가 많아 조사4국을 만난 웬만한 기업은 한 번쯤 곤욕을 치렀다고 보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타이어 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승계작업?

한국타이어는 지난달 비상장 자회사 엠프론티어와 신양관광개발 등 오너 3세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들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 내부거래액이 연간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액의 12%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조현식 부회장과 조현범 사장은 엠프론티어 지분을 각각 24%씩 보유 중이고, 조양래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씨는 12%

를 가지고 있다. 오너 일가의 보유지분율, 그리고 내부거래액 모두 규제 범위를 상회하고 있다.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신양관광개발(비주거용 건물 관리업)도 비슷하다. 이곳의 소유지분 현황을 보면 조현식, 조현범, 조희경, 조희원 등 오너 일가 4남매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지주회사)와 한국타이어 등 내부거래로만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조현범 사장의 형인 조현식 사장이 한국월드와이드를 이끌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주회사라는 특성을 고려해도 계열사로부터 거둬들이는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48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3%에 달해 과도한 수익을 얻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주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타이어 오너 3세의 엠프론티어 보유지분 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타이어그룹의 경영권 승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엠프론티어가 앞서부터 조 부회장과 조사장의 승계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돼온 데다, 지분을 처분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또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의 이유로 뇌물 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딸 수연씨는 2001년 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장과 결혼했다. 한국타이어 경영진 일가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조 부회장과 조 사장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중"이며 "현재 조희경은 두 아들 중 특별히 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골목 상권 위협?

한국타이어가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판매망인 티스테이션의 서비스 영역을 확대한 것에 대해 "승계 자금 확보를 위해 동네 장사까지 뛰어들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사장이 주도하고 있는 티스테이션은 단순 타이어 유통매장을 넘어 엔진오일·브레이크패드 교환 등 자동차 경정비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국내 1위 타이어 업체로 전국 510여개의 티스테이션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 공업사들은 티스테이션의 유통망이 위협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티스테이션은 3급 정비수준 경정비 서비스 '스마트케어'를 제공하고 있지만 2019년 5월 말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양성운·정연우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서 계속

노동계·시민단체는

“인상폭 낮다” 투쟁 예고

경영계와 달리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다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했으나 애초 요구한 시급 8680원 정도의 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고 최저임금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최악의 인상률'이라며 강력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예고했다.

참여연대 또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670원가량이 돼야 했다"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으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별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둘러싼 각계 반발과 관련해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어달라"며 한발 양보를 촉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 공약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임금 지급능력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집행할 계획을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금융권 클라우드 규제 완화... 개인정보도 활용 가능

보안·감독체계 강화방안 마련  
IT인프라 구축비용 감소 기대

비(非)중요정보로 제한됐던 금융권의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으로 넓어진다. 이에 따라 금융사의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공개했다.

클라우드란 기업들이 직접 서버나 플랫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보다는 KT나 네이버, 구글, 아마존 같은 대형 IT 업체가 제공하는 IT인프라를 빌려 쓰는 서비스다.

현재 정부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범위를 비중요 정보 처리시스템으로 제한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규제가 금융회사의 서비스



최 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적용, 신기술 이용과 개발을 제한하고 핀테크 기업에게 IT설비 구축과 같은 초기 시장진입 비용 등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

다고 판단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클라우드 이용을 집적 규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준수를 권장하고 있다. EU·영국은 클라우드 업체를 직접 감독하는 반면, 싱가포르·미국은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보안장치, 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의 클라우드 활용범위를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로 넓힌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의 혁신 상품,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고유식별정보 활용시 일시적 거래량 집중에 장애 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AI기반 대화형 뱅킹서비스도 가능

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 이용(금융회사), 제공(제공자)시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는 중요정보 클라우드 이용시 정보보호 의무 준수, 서비스 제공자 관리·감독, 중요장비 이중화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금융회사 수준의 시스템 구축·운영, 암호화 적용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운영방안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클라우드 이용을 결정하는 방식(EU 등 해외방식) 또는 금융 클라우드 인증제 도입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 디딤돌 대출금리 0.1~0.25%p 인하... 年 최대 28만원 절감

<디딤돌대출 금리 변경 대비표>

국토교통부

대출기간 연소득	현행				개선			
	10년	15년	20년	30년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2.25%	2.35%	2.45%	2.55%	2.00%	2.10%	2.20%	2.3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55%	2.65%	2.75%	2.85%	2.45%	2.55%	2.65%	2.7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2.85%	2.95%	3.05%	3.15%	(좌동)			

서민금융 정책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가 소득수준에 따라 0.1~0.25%포인트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0.25%포인트, 2000만~4000만원은 0.1%

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4000만원은 2.55~2.85%에서 2.45~2.75%로 인하된다.

특히 다자녀·장애안·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등은 우대금리까지 합하면 최저 금리가 1.60%까지 내려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분노·허탈”... 중소기업 소상공인 ‘최저임금 저항’ 위험수위

## 최저임금 또 두자릿수 인상

일부 단체 ‘수용불가’ 입장 밝혀 “편의점 점주, 범법자 몰아” 후평 업종별 구분 등 대책마련 촉구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사용자 단체들이 가뜰이나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더욱 힘들게 됐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분노, 허탈감, 심각한 우려, 아쉬움 등의 단어를 쓸 정도다. 일부 단체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논평에서 “경쟁계가 강력히 주장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들이 전원의회의 참석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결국 최저임금위 전원의회의에 불참했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들이 빠진 채 최종 결정됐다. /연합뉴스

사업별 구분적용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도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

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박탈감이 큰 곳은 소상공인들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시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연합회는 “1년 만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월급을 주는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과연 1년 만에 29% 이상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관계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모임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해왔던 근접 출점, 높은 상가임대료, 불공정 가맹계약 등을 정부와 가맹사업본부가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한계에 다다른 편의점은 이번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7만 편의점 점주들을 범법자로 몰아 ‘잡아가겠다’는 결정이자 공개적 발표”라고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혹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 김기자의 一問一答 ① 최 승 재 소상공인聯 회장이 말하는 ‘최저임금’

### “사용자의 지불능력 감안않고 일방적 결정 정부, 소상공인 버렸다... 대통령이 해법을”

“지불능력을 향상시킨 후 최저임금을 올려도 올려야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지만 우리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조조정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소상공인을 ‘퇴출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소상공인을 끝까지 데리고 갈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김기자의 一問一答’ 첫 회 주인공이 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사진)이 울분을 터뜨렸다.

마침 최저임금위원회는 1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지난 14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팽팽한 줄다리기에 대·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용자위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결국 이날 전원의회의에 불참했다. 이때문에 총 27명의 위원 가운데 5명의 근로자위원과 9명의 공익위원 등 14명만 참석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통과됐다.

최승재 회장은 이에 대해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최저임금 이슈를 놓고 최 회장을 긴급 인터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평가를 해 달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위원회)의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의 과정에서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했던 우리 주장은 강그리 무시됐다.”

“임금을 주는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높여준 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했지만 일방통행을 했다.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고 또 다시 최저임금을 두자릿수 올린 것에 무척 화가난다. (결정 과정에서)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

-내년 최저임금을 한 푼도 올려주지 말자는 이야기였다.

“그렇지 않다. 상승률도 중요한 게 아니다. 지난해보다 16.4% 오른 올해 최저

**메** 트로신문이 새로운 인터뷰를 시도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에 집중합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통해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목소리에는 특정 내용에 대한 진단과 평가, 대안까지 심층적으로 담겠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기자의 여러 질문에 인터뷰이(interviewee)로 나선 기업인, 협단체장, 학계 관계자, 기관장 등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답변한다고 해서 제목을 기존 한자인 ‘一問一答’과는 다른 ‘一問一答’으로 했습니다. (편집자 주)

최저임금 10.9% 오른 ‘8350원’ 사용자위원 불참... 최저임금 통과

“정당성 결여된 결정 ‘수용불가’ 공정경제로 소상공인 퇴로 만들어야”

임금을 경험해보니 소상공인들은 갈 곳이 없어졌다. 소상공인들의 노동시간은 자신들이 고용해 임금을 주는 근로자보다도 더 길다. 그렇지만 사장이 힘들더라도 전년보다 (종업원)임금을 더 올려줘야 한다는 것엔 모두 동의한다.”

“사장이 좋지 않다고 임금을 깎겠다는 발상도 현장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더 배려해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고용한 사람의 사기가 떨어지면 자신의 사업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불능력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장사가 잘 되도록 해야한다는 말이다.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의 지출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살 수 있나. 이렇게 되면 일하던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 폐업률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소득자의 지불능력만 높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고소득자들이 쓰는 돈은 소상공인까지 잘 오질 않는다. 백화점에서 소비하지 동네가게, 전통시장에서 돈을 잘 쓰질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카드수수료 인하나 ‘젠트리피케이션’을 야기하는 임대차문제 등 정책도 지지부진하다.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마찬가지다. 과밀화문제도 해

결해야 한다.”

“특히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오르게 됐는데 소상공인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상상이상이다. 소상공인들은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자기돈 들여서, 또 빚내서 장사를 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상공인이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형으로 소상공인을 하는 사람이 많다.”

“게을러서, 또 능력이 없어 취업을 못한 것이 아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은 전체 일자리의 40%를 감당하며 고용에도 앞장서고 있는 당당한 경제 주체다. (정책적)도움을 주기는 커녕 정당성이 결여된 최저임금으로 우리를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퇴로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만이 되고, 불만이 강해지면 저항이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제계 일부에선 ‘산업별 차등화’를 주장했는데, 연합회는 ‘5인 이하 사업체 차등화’를 강력하게 건의했다. 어떤 내용인가.

“같은 음식점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곳은 연간 매출이 수 십억원이나 되지만 어느 음식점은 사장이 알바생보다 월급을 더 적게 가져가는 곳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산업별로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면 이런 상황에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하지만 ‘5인 미만’은 다르다. 물론 소득 수준도 함께 고려해 차등화를 해야 한다. 5인 미만은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다.

최저생계비도 받지 말라고 하는 것 역시 무리가 있다. 사업체 규모별,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세분화와 노사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번 최저임금도 사실상 중립에 서야 할 공익위원들 의견에 따라 결정됐다. 매년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익위원들의 완벽한 중립을 위해 국민공모제를 거치거나 아예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이 이런 험한 길을 가게하는 것 같다. 해답도 문재인 대통령이 내놔야 하나.

“물론이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정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이)선한 의도였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근로자들 소득이 올라가고, 소상공인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해법을 내놔야 한다.”

/김승호 기자

## 제55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8월 22일~9월 13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8월 25일~9월 15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9월 2일(일), 9월 9일(일), 9월 11일(화)

김태영선

※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1970년대 당시 두산산업차량BG 공장 모습. 국내 최초로 지게차 생산을 시작한 이곳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 국내 대표 물류업체로 성장시킨 기술 역량의 시작점이다.

## 지게차 外 렌탈·물류 등 확장 2022년까지 매출 1.5조 목표

### 두산산업차량 창립 50주년

국내 대표 물류장비 업체 ㈜두산 산업차량BG(이하 두산산업차량)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두산산업차량은 4차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사업영역을 렌탈, 서비스, 물류 등으로 확장해 2022년까지 매출을 1조5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두산산업차량은 지난 13일 인천 동구 사업장에서 동현수(수)두산 부회장, 박상철 산업차량BG장 등 임직원과 주요 딜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1968년 지게차를 국내 첫 생산한 두산산업차량은 지게차 생산 및 연구개발에 주력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물류 장비 업체로 성장했다. 1979년에는 전동 지게차를 국내 최초로 생산했다. 이후 미국과 영국,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과 독일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홍보물 상영으로 시작한 기념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구축한 스마트 팩토리 및 무인지게차 등 향후 변화될 생산 공장의 모습을 시연했다.

특히 협력사와 고객에 대한 정보를 QR 코드로 통합 관리해 품질 관리에서부터 서비스까지 디지털 정보로 쉽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제조실현시스템(MES)과 무인지게차가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는 리

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지게차 BS7 시리즈도 처음 공개했다. BS7 시리즈는 납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동 지게차에 비해 충전 시간이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사용시간과 수명은 2~3배 늘린 것이 특징이다. 또 출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뿐 아니라 영하 40℃의 저온 환경에서도 생산성이 높고, 유지보수가 간단하며 친환경적이다.

이와 함께 지게차를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시스템 ‘링크(Lin-Q)’를 선보이고, 하반기 중 출시할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모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두산산업차량이 자체 개발한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Lin-Q는 장비 개선과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준다. 스마트모드 애플리케이션은 AI 기반 머신러닝으로 장비의 엔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작업장 특성에 적합한 엔진 출력으로 자동 변경해주는 기능이다.

현재 두산산업차량은 전세계 93개 국에서 400여개 딜러망을 통해 40여종 140여모델의 지게차를 판매하고 있다. 2015년 영국 지게차 렌탈업체 리시리프트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미국 애틀랜타에 제품 판매뿐 아니라 렌탈, 서비스, 물류 등 관련 서비스까지 직접 제공하는 팩토리스토어를 설립하는 등 유럽 및 북미시장에서의 다운스트림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매출은 약 8000억원으로, 해외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2022년에는 매출 1조50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 LG 올레드TV, 올해의 최고 TV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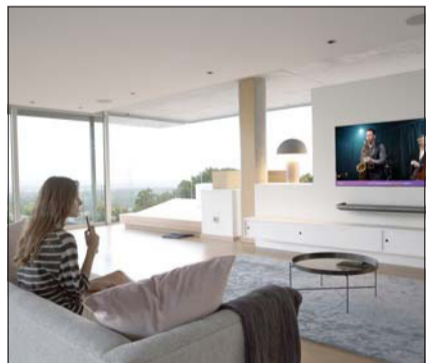
### 美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 만점

LG전자는 미국 USA투데이 리뷰 전문매체 리뷰드닷컴에서 LG 올레드 TV에 대해 올해의 최고 TV로 평가하며 10점 만점을 부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매체는 LG 올레드 TV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TV 평가 1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IT 전문매체 디지털 트렌드는 LG 올레드 TV에 대해 10점 만점 기준 9점을 부여했다. 음성인식 기능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기술일 뿐만 아니라 음성인식 기술의 미래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LG 올레드 TV는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싱큐(DeepThinQ)’를 기반으로 자연어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인공지능 맞춤형 검색부터 인공지능 TV 제어, 인공지능 영상·사운드 모드 조정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우수성으로 인해 네덜란드 콘수멘텐기즈가 선정한 55인치와 65인치 TV 평가에서도 각각 1위를 차지했고, 영국의 유력 소비자잡지 ‘위치?’의 TV 평가에서는 1위부터 4위를 휩쓸었다. 이 밖에



고객이 LG 올레드 TV의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해 콘텐츠를 검색하고 있다. /LG전자

▲프랑스 크 슈아지르 ▲스페인 오씨유 ▲스웨덴 라드 안론 ▲이탈리아 알트로 콘슈모등 유럽 주요 소비자잡지들도 자체 실시한 성능평가에서 LG 올레드 TV를 1위로 꼽았다.

유럽 매체들은 LG 올레드 TV에 대해 탁월한 화질은 물론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해 생생한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돌비 애트모스는 화면상의 사물의 움직임이나 위치에 따라 소리가 사용자의 앞이나 뒤, 위에서 들리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입체음향 시스템이다.

/안병도 기자

## 효성 인적분할 후 재상장… 기업가치 얼마나 될까

# “그룹 콘트롤타워” 시총 6조 예상

### 지주사 체제 올해 안에 마무리 홀딩스 유상증자로 지배 강화

효성이 증시에 재상장되면서 각 사의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섰다. 이번 재상장으로 인해 효성의 기업가치는 6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3일 사업부문별 독자 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을 단행, 재상장을 진행했다. 지주사 체제는 올해 안에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효성은 지난달 1일 효성을 존속 법인으로 두고 인적분할을 통해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 등 4개 회사를 신설했다.

이번 재상장을 통해 효성은 그룹의 콘트롤타워로서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을 위한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에 본격 나서게 된다. 또 연내 효성홀딩스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효성티앤씨는 섬유 부분과 무역 부분



서울시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효성

사업에서 크레오라와 스판텍스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에 집중하고 오는 202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효성첨단소재는 세계 45%의 시정점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타이어코드를 비롯한 타이어보강재사업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자동차 등 소재 일관화 사업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본격 나선다. 주요 국가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전력 및 도시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는 시장이다.

효성화학은 고부가가치 파이프용 PP 시장을 넓히고 베트남에 PDH 설비 착공

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재상장을 통한 효성의 시가총액도 관심을 끈다. 신영증권은 거래 정지일 기준 4조7000억원대인 효성의 시가총액이 재상장 후 총 5조8000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영증권의 이지연 연구원은 “세계 1위 제품인 스판텍스와 타이어코드 등을 보유한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는 재거래시 재평가로 상승이 유력하다”며 “지주회사인 효성과 효성중공업은 코스피 200에 편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확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효성이 1998년 외환위기로 주력 4개 회사를 합병한 이후 다시 분사하는 것을 감안, 사업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효성의 주력사업으로 떠오른 베트남 등 해외법인의 회계분리 등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개별 법인의 주력사업 전망으로 상장 초기 추가 방향성을 가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삼성전자, 3.5GHz 대역 5G 장비 첫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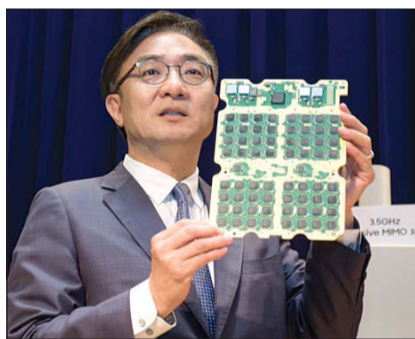
### “최고의 제품을 적기에 공급 자신” 국제 표준 기반 제품 중 가장 작아

삼성전자가 3.5GHz 대역 5G 통신장비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5G 상용화 일정에 맞춰 국내 이통사에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은 13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직접 3.5GHz 대역 5G 기지국 장비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기 사업부장은 “3.5GHz 대역에서도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제품으로 우리 시장에 적기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800MHz의 광대역을 10Gbps 이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28GHz 고주파 기술이 진정한 5G”라며 “대역폭이 800MHz에서 100MHz로 줄고, 안테나 수도 1024개에서 64개로 줄어드는 3.5GHz 대역에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5G 주파수 대역은 크게 3.5GHz와 28GHz



김영기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장은 13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3.5GHz 대역 5G 기지국 장비를 소개했다. /뉴스1

로 나뉘어 있다. 저주파수 대역인 3.5GHz는 고주파 대역보다 데이터 전송량이 적은 대신 전파 도달거리가 길고 전송 속도가 빠르다. 고주파 대역인 28GHz는 전파 도달거리가 비교적 짧은 대신 대역폭이 넓어 대용량 데이터 전송량이 많다.

화웨이는 3.5GHz에 집중했지만 삼성전자는 28GHz 대역을 중심으로 장비를 구축해왔다. 때문에 업계는 삼성전자가 적기에 3.5GHz 장비를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보였다. 그동안 화웨이의 장비 기술력은 삼성전자 등 경쟁사보다 1분기 이상

앞서면서 가격은 20~30%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김영기 사장은 이런 삼성과 화웨이의 기술력 차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화웨이보다 늦은 게 아니라) 어느 회사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시장에서 가장 좋은 5G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기에 “홀 시큐리티 회사를 고를 때도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것이 신뢰도”라며 “한국 산업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정적인 회사가 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이라고 언급했다. 보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앞선다는 의미다.

이날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된 5G 장비는 지난해 말 완료된 3GPP(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 국제표준 기반 제품 중 가장 작은 크기로 알려져 있다. 12월 1일 5G 주파수 송출 시작과 내년 3월 상용화 계획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완성단계에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최적화가 완료되는 대로 양산해 이동통신 사업자에 공급될 예정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LG전자 ‘제1회 어린이 환경그림 공모전’

‘환경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 주제  
지난 5월 초 6700여점 작품 접수

LG전자가 ‘제1회 LG전자 어린이 환경그림 공모전’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목적이다.

LG전자는 14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제1회 LG전자 어린이 환경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5월 초에 시작한 공모전에는 약 670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이다. LG전자는 어린이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기술과 접목시켜



LG전자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위치한 LG트윈타워에서 ‘제1회 LG전자 어린이 환경그림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에서 수상한 어린이들이 시상식이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전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LG전자는 최고 으뜸상 2명에게 각각

환경부장관상과 LG전자 대표이사상을 수여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배터리·야외 촬영템부터 '100만원 캐시백'까지

# 휴가철 '인생샷 카메라' 사고 선물 받아주세요

**캐논** 18만원 상당 배터리·메모리카드  
**소니** 정품등록 시 방수 무선이어폰 등  
**니콘** 내셔널지오그래픽 정품 솔더백  
**후지필름** 최대 100만원 캐시백 이벤트



소니 여름 프로모션. /소니코리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카메라 업계가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은품과 캐시백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캐논은 오는 8월 31일까지 대표 하이엔드 DSLR 카메라 구매자를 대상으로 '캐논 풀프레임 No.1 구매 찬스' 및 'EOS 80D 스마트 구매 찬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행사기간 내 캐논 EOS 5D 마크 IV와 EOS 6D 마크 II, EOS 80D 등 풀프레임 DSLR 카메라를 포함한 주요 하이엔드 DSLR 카메라 구매자에게 최대 18만원 상당의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 슬라이드 스트랩 등 야외 촬영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아이템을 제공한다.

선택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샌디스크 익스트림 CF 메모리 카드'와 'SD 메모리 카드'는 빠른 전송 속도와 안정성을 갖춰 고해상도의 이미지와 영상을 안정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픽디자인 슬라이드 스트랩'은 간편한 탈부착 시스템과 원핸드 스트랩 길이 조절이 가능해 여행용 카메라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소니는 미러리스카메라와 하이엔드카메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정품등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우선 소니 렌즈 교환식 카메라 알파(a)는 오는 8월 16일까지 a7 II, a6500, a6300, a6000, a5100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해당 제품을 구매한 후 8월 19일까지 소니코리아 고객지원사이트에서 정품등록 및 사은품 신청을 완료하면 제품에 따라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 a7 II, a6500, a6300 구매 고객에게는 배터리 충전기 또는 스포츠용 방수 노이즈 캔슬링 무선 넥밴드 이어폰을, a6000과 a

5100 구매 고객에게는 전용 배터리 또는 스포츠용 방수 무선 이어폰을 증정한다.

소니 RX100 시리즈 프로모션은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내에 소니 RX100 시리즈를 구매 후 10월 7일까지 정품등록 및 사은품 신청을 완료한 모든 고객에게 여행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행용 충전기 키트를 증정한다.

니콘은 니콘 카메라와 니코르 렌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한다. 이벤트 대상 제품은 니콘의 인기 DSLR 카메라 6종과 아웃도어 카메라 1종, 니코르 렌즈 4종이다.

DSLR 카메라 제품군 구입 시에는 정품 배터리와 128GB 메모리카드 세트 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솔더백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아웃도어 카메라의 경우 정품 배터리나 전용 실리кон 케이스 중에서 선택 가능하다. 또한 니코르 렌즈군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렌즈 보호용 제품인 니콘 NC 필터를 제공한다.

오는 8월 19일까지 제품을 구입하고, 8월 24일까지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품등록, 무상서비스 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 후 경품을 선택하면 된다. 경품 선택은 8월 31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후지필름은 자사의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 GFX 50S 및 GF 렌즈, 영상 강화 미러리스 카메라 X-H1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 내에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 GFX 50S와 GF 렌즈 8종, X 시리즈 플래그십 제품인 X-H1을 구매하고 9월 7일까지 후지필름 공식 홈페이지에 정품 등록하면 자동으로 접수된다.

GFX 50S 바디는 구입 시 100만원 캐시백을, GF 렌즈는 기종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 후지필름 프리미엄 서비스인 GFX FPS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게 될 경우 캐시백과 함께 20만원의 웰컴 리워드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 X-H1 바디를 단품 또는 배터리그립 키트로 구매하면 각각 30만원의 캐시백 혜택이 주어진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후지필름의 'X-H1'



## '스팸 아닙니다'... 오피스형 발신알리미 출시

KT 발신알리미 1개월 무료 이벤트

KT가 유선전화 부가서비스 '발신정보알리미 오피스형'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1개월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KT 유선·인터넷전화 고객이 상대방 이동전화로 발신 시 회사 상호명 등 미리 설정한 정보를 상대방 수신 화면에 표시해주는 서비스다. KT는 오피스형 상품에서 이통3사 고객의 휴대폰에 발신정보명을 표시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광고 등 불필요한 전화로 인해 모르는 전화번호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KT가 유선전화 부가서비스 '발신정보알리미 오피스형'을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9월 말까지 1개월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KT

이로 인해 시군구청이나 은행지점, 서비스센터 등 전화로 필수정보를 전달하

거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고객과 소통 어려움도 증가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발신정보알리미 오피스형은 월 1만6500원(VAT포함)에 6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개월 무료 이용 이벤트를 진행하며, 서비스 문의 및 가입 상담은 100번 고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하는 기업은 발신정보명 표시로 고객에게 통화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부재중 전화에도 발신정보명을 표시해 콜백 유도가 가능하다. 전화를 수신하는 고객 입장에서 필요한 전화와 불필요한 전화를 구분할 수 있어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안병도 기자



권해진 KT INS운용센터장이전국 1천500곳의 미세먼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뉴스1

## KT, 전국 1500곳서 미세먼지 실시간 관리

경기도 과천 통합관제센터 공개 미세먼지 요인 분석해 대책 마련

KT가 전국 1500곳의 미세먼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공개했다. 경기도 KT과천타워 7층에 있는 KT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가 바로 그곳이다.

15일 KT에 따르면 KT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 입구 모니터에는 전국 지도가 나타나 있다. 전국 공기질 정보를 나타내는 에어맵(Air Map) 상황판은 공기질을 색깔로 표시해 준다. 초록색은 '미세먼지 보통', 파란색은 '미세먼지 좋음'이란 의미다. 미세먼지가 많아 나쁜 날은 노란색이며 최악인 날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KT는 작년 9월부터 에어맵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전국에 공기질 관측망을 세웠다.

관측 장비 하나가 커버하는 면적은 약 500㎡로 서울 기준 정부 측정망보다 조밀하다. 정부가 서울에 설치한 측정소는 작년 말 기준 25개이며 개당 탐지면적은 14㎢ 정도다.

KT는 자사 관측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미세먼지 영향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저감 대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미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울산 미포·온산 일대 산업단지에 공기질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는 공기질 관리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10여곳과도 협력 중이다. 경북 영덕군은 KT의 실시간 공기질 데이터를 자체 웹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에게 제공한다.

강릉시는 미세먼지 발생 경로를 살수차 동선 설정에 활용하고 있다. KT는 올해 안에 미세먼지 정보 앱도 선보일 계획이다.

KT의 환경안전사업담당 이광욱 상무는 "미세먼지 측정 정보를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결합하면 공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에 미세먼지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미세먼지 확산을 예측해 모바일로 사전 경보 문자를 제공하거나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지시하는 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KT는 정부 저감 정책을 지원하는 등 공공성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수익사업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측정 장비에 대한 정부 가이드가 없는 점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 1면 'LG 구광모 체제'서 계속

## 구광모 LG그룹 회장, 핵심사업부 조정 전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재직시에도 CJ헬로 인수에도 관심을 보이는 등 공세에 능한 업무 스타일이다.

LG그룹 핵심인 LG전자·LG화학·LG유플러스·LG생활건강·LG디스플레이 등은 지난해 비교적 좋은 실적을 거뒀으나 올해에는 악화된 경영 상황을 맞고 있다. 따라서 권 부회장은 주력 계열사를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그룹 전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으며, 지주회사에서 이들 핵심 사업부를 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에서는 구 회장이 LG전자 재경부문 대리 경영수업을 받을 때 권 부회장도 CFO자리에 있었던 개인적 인연도 영향을 끼친 것이라 의견도 있다. /안병도기자

## LGU+ "IoT로 '꿀잠' 주무세요"

사용자 맞춤 수면 가이드 제공

LG유플러스가 수면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해 건강한 수면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IoT수면알리미' (사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이용자의 호흡과 맥박, 뒤척임 수 등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이후 종합적인 수면 상태를 이해하기 쉽게 점수로 환산하여 스마트폰 앱에서 표시한다. 잠든 시간과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깊은 잠과 얕은 잠의 비중 등의 수면 정보를 하루와 한주, 한달 단위로 알려주며 사용자에게 맞는 수면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의 '얕은 잠 알람' 기능은 일어나려고 설정한 시간대에 얕은 잠이 측정되면 스마트폰에서 알람이 울려 편한 기상을 돕는다. /안병도기자



LG유플러스는IoT수면알리미가수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불면증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과 잠이 부족한 수험생들의 수면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

LG유플러스 홈IoT 플랫폼인 IoT@home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IoT기기와 연동해 함께 사용하면 좋다. /안병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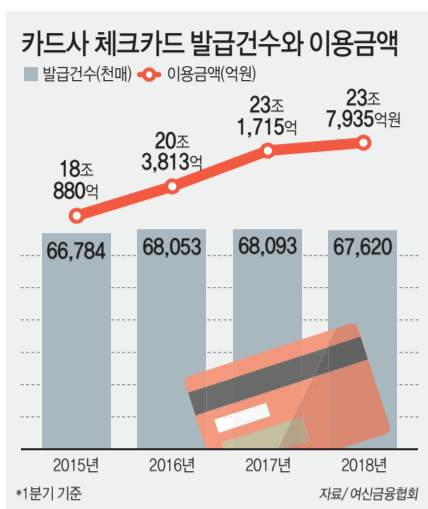


# 이용액 증가 체크카드... 카드사엔 언제 실적 효자노릇하나

전체카드 이용 비중 25% 차지  
부가수익 신용카드보다 '미미'  
“장기적 잠재적 효과 고려해야”

# 직장인 A씨(30)는 올해 들어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을 늘렸다. 체크카드 혜택이 확대된 데다 통장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 무분별한 지출이 조금이나마 줄어 들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다.

체크카드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체 카드 이용 비중의 25%를 차지하면서 카드사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현금 개념의 체크카드 이용이 늘어나는 것은 카드사 수익엔 별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서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건수는 주춤했지만 이용금액은 23조7900억원으로 지

난해에 비해 6000억원 증가했다. 체크카드 누적 이용금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은행계' 카드사로 KB국민카드가 8조 545억원, 신한카드, 우리카드가 각각 7조 3681억원, 4조82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크카드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 온 '기업계' 카드사 가운데 삼성카드도 올해 1분기 이용금액이 2770억원으로 지난해(2537억원)에 비해 2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먼저 카드 이용의 보편화로 결제 규모가 늘어나고 연말정산의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말 정산 시 연봉의 25% 초과 결제금액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다. 반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다.

이 밖에 카드 연동계좌에서 돈이 즉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특성상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고 관리도 편리해 체크카드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체크카드의 활약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할부수수료나 연회비 수익, 연체수익 등의 부가수익이 체크카드에선 발생하지 않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로 돌아오는 수익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사실 체크카드에서 나오는 수익은 신용카드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이후에 신용카드 고객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발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업계 안팎에서는 카드사의 체크카드 증가에 맞춘 상품 확대가 경영 악화에 허덕이는 카드사들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체크카드 사용증가가 카드사에 별다른 이익이 없을 수 있지만 체크카드 사용이 가져올 잠재적 효과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잠재적 효과로는 신용카드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고,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갚지 못하는) 고객부실에 따른 카드사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사기범 17개 목소리, 현상수배 합니다” “디지털혁신 선도... 고객 중심 경영 박차”

금감원, 보이스피싱 목소리 공개  
금감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17명을 공개 현상수배한다.  
금감원은 사기범 목소리 데이터베이스(DB)를 비교·분석해 4차례 이상 신고된 사기범 17명의 목소리(‘바로 이 목소리’)를 공개하고, 현상 수배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민들로부터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국과수에 제공하고, 성문(聲紋)분석 기법을 통해 여러 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하는 등 사기범 목소리 DB를

축적해 왔다.  
‘바로 이 목소리’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청취할 수 있다. 해당 목소리의 사기범 인적사항을 신고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고압적인 말투로 주로 ‘통장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다’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며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보이스피싱의 주요 사기 수법이나 특징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는 즉시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KB금융그룹 하반기 경영진 워크숍  
윤종규 회장·허인 은행장 등 참석  
SI 보이스뱅킹 개발 사례 등 공유

KB금융그룹은 지난 13일 KB국민은행 경기도 일산연수원에서 '2018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종규 회장, 허인 은행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첫 번째 순서로 전체 경영진이 고객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고객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 디지털부서 실무담당 직원들을 강사로 초청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뱅킹 개발사례와 기업여신, 리서치, 콜센터 등 128개 업무에 적용돼 운영 중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활용사례 등 그룹 내 디지털 기술 시연을 통해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이 지난 13일 개최된 2018년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고객 중심 경영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유스(Youth)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SNS 특강, 미래 전망, 글로벌 인사이트 등 혁신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는 전문가 특강에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경영진의 조별 분임 토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투자설명회(IR) 및 대통령 경제사절단으로 인도를 다녀온 윤 회장은 해외에서 직접 접한 투자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시장 분위기를 경영진들과 공유했다.

KB금융 관계자는 15일 “모든 경영진들이 한 자리에 모인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통해 그룹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며 “특히 이번 워크숍은 KB가 디지털 시대에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금융의 이니셔티브를 확고히 할 것과 고객중심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겠다는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l@

## “美 기업, 금리 올라도 부채 상환부담 제한적”

한은 ‘美 기업부채 현황·리스크 점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미국 기업 부채 상환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미국 기업부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해외경제 포커스 ‘미국 기업부채 현황과 리스크 점검’에 따르면 미국 비금융기업의 부채 규모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추가 이자 부담 ▲이자보상배율을 고려해본 결과 기업부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비금융기업 부채는 2008년 말 6조 5705억달러에서 2010년 말 6조 441억달러로 감소했지만 올해 1분기 9조572억달러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다만 한은은 연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41.0%로 과거 고점인 46.6%(2001년)와 44.4%(2008년)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이자부담도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금리인상의 경우 2019년 371억 달러로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보다 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별로는 에너지(광업), 유틸리티, 부동산의 이자보상배율이 특히 낮아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 이자부담 추정〉

정책금리 변화	정채금리	추가적 이자비용 (백만달러)		
		채권	대출	합계
2018	94	898	14,440	15,338
2019	184	4,143	32,989	37,132

정책금리 변화는 누적 기준 /자료=FRB

금리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들 산업부문이 금융위기 이후 레버리지가 꾸준히 상승해온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점진적인 금리 인상 가정하에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점에서도 기업부채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이자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비율이다. 1 미만이면 영업이익 전체로도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자보상배율은 2013년 이후 레버리지가 상승하면서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금리 인상 시 2019년 말까지 4.1배로 낮아지더라도 금리 불변 시의 4.6배에 비해 소폭 악화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취약부문도 에너지, 유틸리티, 부동산 등으로 이자보상배율의 하락 폭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2000년 이후 평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유리 기자

## 추월 교통사고, 가해자 100% 과실?

### 금감원 Q&A

Q 얼마전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뒤 따라 오던 자동차가 제 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얼마간 제 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도 속상한데, 더욱이 이 사고가 쌍방과실로 인정되어 앞으로 지불할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억울합니다. 저는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전했음에도 책임을 일부분 부담해야 하는 점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A 지금까지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는데도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 억울하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2019년 1분기부터는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일방과실(과실비율 100:0)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질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사고유형을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 차량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30:70)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운전자는 직진차로의 옆차선 차량이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접거리에서 급추월을 시도하다가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추월을 시도하던 차에게 일방과실(현재 과실비율 20:80)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앞 차의 운전자는 뒷 차의 움직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심의하는 자문위원회가 신설돼 어떤 유형의 사고에 일방과실을 적용할지를 심의할 예정인데, 동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DART 사용법 교육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전자공시 시스템(DART)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 분기에 한번씩 상장법인 등이 전자공시 문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돕기 위해 DART 사용법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3분기 교육은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DART 편집기 사용법 등 전자공시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또 사업보고서 내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개별 보수 공시 등 최근 '기업공시 서식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신(新)회계기준 적용에 따라 변경된 'DART표준계정과목'과 이와 관련한 재무제표 작성 요령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 〈DART 사용법 교육실시 내용〉

일시: 18.7.18 14:00~16:00  
장소: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대상: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SK하이닉스 안에서  
세상 밖으로**

**우리 생활 곳곳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오늘의 스마트폰에서 미래의 인공지능까지  
우리의 삶이 있는 곳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 밖으로—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당신의 삶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안에서 밖을 만들다





# ‘통개발’ 박원순 플랜에 여의도 매물 ‘씩’·집값 ‘씩’

## Q 르포 | 여의도 재건축 단지 가보니

여의도 개발 청사진에 매수 희망↑  
소유주들 매물 회수... 관망세 전환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개발 청사진을 밝힌 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들쭉이고 있다. 서울시의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에 따라 재건축 방향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의도 부동산 시장에서 ‘결국 시세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분위기다.

◆매물 제로...“3일만에 다 거둬들여”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재건축 단지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가 분주했다. 최고 기온이 32도에 이르는 날씨에도 방문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손님이 내방해 있거나, 문의 전화가 이어져 전화 응대에 바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 A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마스터플랜 발언 이후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지방에서도 매수 희망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를 업무·주거지가 어우러진 ‘신도시급’으로 재개발할 것

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기부채납을 받아 공원을 늘리고 업무·주거 복합타운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는 9월 이런 방향이 담긴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 플랜이 나오면 기존 재건축 개발 방안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현재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1971~1978년 건축)는 12곳, 6460가구 규모다.

그러나 이들 중 아직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지난달 여의도 공작아파트, 시범아파트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상정됐으나 이 플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공작아파트는 현재 최고 12층, 373가구로 예비 신탁 시행자로 KB부동산신탁을 선정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최고 50층 높이의 417가구로 탈바꿈한다.

시범아파트는 높이 13층에 1790가구로 한국자산신탁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35층 높이, 2370가구 규모로 바뀐다.

이런 분위기에 소유주들은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며 관망세로 전환했다. 실제로 시범아파트의 경우 현재 나와 있는 매



지난 13일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인 시범아파트, 한양아파트 전경.

물이 제로(0)다.  
인근 B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있었던 매물은 다 팔렸고 나머지 매물은 박원순 시장 발언 후 3일 만에 다시 회수됐다”며 “현재는 입주권 받을 수 있는 매물은 없고 현금 청산분밖에 안 남았다”고 말했다. 현금청산이란 재개발·재건축에서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는 매물을 말한다. 일단 집을 갖고 있다가 여의도 마스터플랜에 따른 시장 변화를 본 뒤 움직이겠다는 분위기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 높아  
여의도 재건축 일대의 아파트 주인은 일단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는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시범아파트의 79.240㎡ 경우 지난 1월엔 9억9000만~11억2000만원에 매매됐다. 이어 4월엔 12억원(2·6층)에 거래됐다. 3개월 만에 최대 2억원 가량 오른 셈이다. 156.990㎡도 지난 1월 15억~16억9000만원에 거래됐다가 4월엔 17억1000만원(6층)에 팔렸다. 가격이 계속 상승세다. 현재는 매매 물건이 다 회수되고 전세 물건만 남아있다. 전세 매물의 경우 156.990㎡가 4억5000만원으로 매매가와 차이가 크다.  
공작아파트는 지난 3월 93.060㎡가 13억원(12층)에, 126.020㎡는 15억5000만원~16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126.020㎡ 매물

이 17억원에 나와 있다. 마찬가지로 3개월 여 만에 최대 1억5000만원이 된 셈이다.  
공작아파트 인근 C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는 집이 노후된 데다 100% 2년 보장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단지에 비해 전세가 싸게 나왔다”며 “현재 입주권이 있는 매물은 희소성이 있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여의도 마스터플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시장의 구상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지난 2009년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와 비슷하다는 지적에서도. 당시에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에 40% 수준의 기부채납 비율을 요구해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결실을 보지 못했다.  
/글·사진·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주간펀드동향

### 증시 상승세에 투자 호조 국내펀드 자금 1조원 유입

2분기 실적발표를 앞두고 국내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국내주식형 펀드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다.  
15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지난 한 주(7월6일~7월12일)간 중국이 A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시아 증시 전반에 호재로 작용했으나 이후 미·중간 무역분쟁 격화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등락을 일부 축소한 결과 전주 대비 1.22% 상승한 2285.06에 장을 마감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주 대비 1.65% 상승한 2130.86포인트를 기록했고, 신흥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MSCIEM 지수는 전주 대비 1.51% 상승한 1070.24를 기록했다.  
이에 국내주식형 펀드는 1.42% 수익률을 기록했다. 2분기 어닝시즌을 앞둔 기대감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난 영향이다. 순자산은 1조4100억원 순유입세를 기록했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2.30% 올랐다. 지역별로 러시아(3.88%), 중국(3.47%), 중남미(2.98%)가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고, 베트남(-0.42%), 신흥아시아(0.54%) 펀드는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 순자산은 5800억원 늘었다. 달러 대비 자국통화 환율이 점차 안정세를 보였던 신흥아시아 중심으로 순자산이 증가했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주식형 펀드는 액티브주식중소형 유형인 ‘플러스스텐베거중소형주권투자신탁1(주식)종류C-i’(3.82%), 해외주식형에서는 신흥아시아주식 유형으로 분류되는 ‘KB중국본토A주레버리지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C-E CLASS’(6.42%)가 수위를 기록했다. /손영지 기자

## 국제 곡물값 하락... 사료축산업계 수익 기대

株라쿨라의 종목  
팜스토리  
앞으로도 곡물가 계속 떨어질 것  
사료·육가공 사업부문 미래 밝아

〈팜스토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주요 지표추이〉 (단위: 십억원, 원, 배, %)

구분	2016	2017	2018E	YoY	2019E	2020E
매출액	900.5	838.6	879.3	4.9%	911.8	962.0
영업이익	23.6	20.6	38.2	85.7%	42.0	45.2
영업이익률	2.6%	2.5%	4.3%	-	4.6%	4.7%
순이익	12.9	12.8	23.4	82.6%	28.6	31.9
PER	8.3	8.5	4.9	-	4.3	3.9
EPS	187	156	281	-	320	358

/자료=리서치알ום

“미중 무역전쟁 속에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사료·축산 업계의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독립리서치 리서치알ום 최성환 수석 연구원은 15일 팜스토리에 대해 사료 사업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팜스토리는 이지바이오 그룹의 사료, 축산 전문업체로 제주축협, 도드람 등과 함께 국내 양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대두박과 옥수수 등의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해 돼지와 닭의 배합사

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사료 사업 부문’은 전체 매출 가운데 57%를 차지하는 분야다.  
최 연구원은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대두박 가격은 지난 3월 말보다 13.2% 급락했고, 옥수수 가격 역시 9.6% 하락한 상태다.  
최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제 곡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곡물에 고율관세

를 부과하며 수요처가 없어진 미국산 농산물에 시장에 풀려 공급과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지난 1분기 사료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78.8% 늘어나며 큰 폭의 수익 개선을 이뤘다”며 “사료의 원재료인 곡물가격 하락이 지속돼 원가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체 매출의 31%를 차지하는 육가공 사업 부문 역시 미래가 밝다. 돼지고기 소

비가 늘어나며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기록하는 가운데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 2012년 19.2kg에서 지난해 24.5kg으로 27.6% 늘었다. 돼지 가격 역시 지난 3월 구제역 발생으로 10% 넘게 오른 가운데, 육류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7월 말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데다 월드컵에 이어 아시안게임까지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국내 육류 소비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사료 부문과 육가공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며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4.8배에 불과한 만큼 저평가 상태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서치알ום은 팜스토리에 대해 ‘긍정적’인 추가전망과 함께 적정주가 2250원을 제시했다. 현재 주가 대비 60.1%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1분기 기준 785만주 가량 남아 있는 미 행사 전환사채 물량(행사가격 1248원)을 감안한 분석이다. /손영지 기자 sonyj301@

## 다가온 휴가철에 분양시장도 ‘숨고르기’

분양캘린더  
7월 셋째 주 아파트 분양시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숨고르기’에 들어간다.  
1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수도권에서 2413가구, 지방 2272가구 등 전국에서 4685가구가 분양된다.  
동성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여의도리슈빌DS(오피스텔)’의 청약을 시작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2층, 1개 동, 310실(전용 21~27㎡)의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대구 동구 지묘동 ‘대구연경아이파크’의 청약자를 받는다. 단지의 규모는 지하 2층~지상 18층, 11개 동, 792가구(전용 84~104㎡)다. 또 최고경쟁률 89.9대 1을 기록한 경기 성남시 정자동 ‘분당더샵파크리버’ 등 18곳에서 계약을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꿈의숲아이파크’ 등 19곳에서 이뤄진다.  
건본주택은 6곳에서 문을 연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52번지 일대에 ‘철산센트럴푸르지오’를 분

〈7월 셋째주 분양캘린더〉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7/16(월)	접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여의도리슈빌DS
			대전	중구	중촌동
7/17(화)	접수	부산	북진군	울진읍	울진센텀리치파크 1순위
			부산진구	전포동	서면스윗팰리스
7/17(수)	접수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위스테인벨내A1-5(민간임대) (~7/19)
			화성시	산척동	화성동탄2A63(공공임대) 1순위
			화성동탄2A81(공공임대) 1순위		
7/19(목)	접수	대구	수성구	파동	대우건설이파크 1순위 (당해지역)
			전북	군산시	내홍동
7/19(목)	접수	대구	동구	지묘동	대구연경아이파크 1순위
			전북	정읍시	상동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만 표시. /자료=부동산114

양한다. 현대건설은 경기 부천시 중동 1154번지에 ‘힐스테이트중동’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HDC현대산업개

발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661-2번지 일원에 ‘청주가경아이파크3차’를 공급한다. /채신화 기자



국회의장단·상임위구성 완료

# 與, 민생·개혁법안 속도... 野, 최저임금 등 정부 견제

후반기 첫 7월 임시국회 개최  
현안 놓고 與野 줄다리기 예상

국회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데 이어 오는 16일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며 20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인 7월 국회의 막을 올린다.

국회 휴업이 40일 넘게 지속된 만큼 7월 국회에서는 산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생·개혁법안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정부 경제정책의 3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경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주당은 당내 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와 민생평화팀의 가동에도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주요 상임위를 가동해 처리가 시급한 법안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9월 정기국회에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에 대한 논의를 서두르겠다는 각오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화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특히 '궁중족발 사태'로 촉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에는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더불어 양성평등기본법,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미세먼지 저감법 등 주요 사회·환경 법안에 대한 논의도 벌어지며 개혁입법 모멘텀을 살려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5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참패 후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경제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만큼 역시 민생법안 처리에 몰두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미세먼지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최저임금법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

제 등을 적극 비판하면서 정부·여당을 집중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논의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아울러 방송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도 주도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전반기 국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방송법 개정안이 다시금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모두 관심을 쏟고 있는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방지법도 쟁점 법안 중 하나다. 댓글조작 방지를 위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등 17개 법안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원구성 합의의 전제조건이기도 했던 법제사법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논의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입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최근 논란이 된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등 국회 내부 개혁에 대한 여야 논의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당장 다음 주부터 예정된 경찰청장 후보자와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국회의 순항을 가를 변수다.

일각에서는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순식간에 청문 정국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재공전할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권이 민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을 제기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늦추면 정국은 또다시 대치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국회 원구성 논의가 늦어지면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시한도 넘긴 상태다.

오는 23~25일에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김선수·노정희 후보자의 이력 등을 거론하며 '좌편향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18일로 예정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동반 미국 방문은 향후 정국 순항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 양대정당인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초당적 협치 무드가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北·美 유해송환 회담... 종전논의 할까

유엔사-북한군 9년만의 장성급회담

판문점서 첫 '유해송환' 의제 다뤄  
송환 절차·방식 주로 협의할 예정

북한과 미국은 15일 6·25 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회담을 했다.

정부 및 주한미군의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판문점에서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 관련 회담을 진행했다. 유해송환의 시기 및 송환방식 등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측 대표단에는 공군 소장인 마이클 미니한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이, 북측 대표단에는 미국과 같은 급(별 2개·북한 계급상 중장)의 인민군 장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측 장성의 소속은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KPA)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미국 측 회담 대표들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차량 3대가 오전 8시 20~35분에 통일대교 남단에 도착해 유엔 깃발을 단 뒤 판문점 쪽으로 향했다.

2009년 3월 개최 이후 열리지 않았던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이 9년 4개월 만에 열렸다. 미 공군 소장과 북한군 중장(우리의 소장)이 대표로 참석한 유엔사-북한군 장성급 회담은 1998년부터 16차례 개최된 바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정전협정 준수 등의 문제가 주로 논의됐고, 미군 유해송환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를 논의하는 북미 판문점 회담이 열리는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미군 차량이 유엔깃발을 달고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에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장성급 회담은 당초 지난 12일 열릴 예정이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에 불참한 북한이 주한미군을 주축으로 편성된 유엔군사령부 측에 장성급 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미국 측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당초 미국 측은 대령급 회담을 하려 했으나 급(級)을 높이는 북한의 요구를 일단 받아들였다.

정부 소식통은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유해송환 문제만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유해송환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모종의 요구를 하거나, 정전체제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협의할 후속 장성급 회담을 요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군 유해송환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이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에서 9년여 만에 장성급 회담을 개최함에 따

라 양측이 이 채널을 상시화하고 의제를 확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측이 북미 장성급 회담 채널 복원에 합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날 회담에 장성을 참여시켰으로써 일단 2009년 3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북미 간에 장성급 회담이 열리게 됐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을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에 국한된 회담으로 여기고 있어 보이며, 이와는 달리 회담 참석자의 급(級)을 올리자고 제안한 북한의 속내는 다를 수 있어 보인다.

이로 볼 때 북한은 우선 장성급 회담 채널의 복원과 지속적인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하자고 한 것은 나쁜 징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끊겼던 장성급 협의 채널을 복구하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북미 간에 다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두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승호 기자

## 김진표, 민주 당대표 출마 공식선언

"유능한 경제정당 대표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5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유능한 경제정당을 이끄는 경제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바퀴와 함께 혁신성장의 바퀴를 굴려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중소벤처 창업 열풍으로 혁신성장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0년에 있을) 다음 총선은 경제총선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경제를 개선하지는 않고는 결코 승리하기 어려운 선거인만큼 이번 전대가 대권 주자 쟁탈전이 돼선 큰일 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문산~개성 경의선 철도 이번주 공동점검

南·北, 회담 합의사항 본격이행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실무급에서 진행됐던 철도·도로·산림 분야 회담의 합의사항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이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합의사항 이행의 첫 테이프는 철도 분야의 협력사업이 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26일 철도협력분과회담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연결구간 공동점검, 북측 구간 공동조사 등을 합의했다.

이중 가장 먼저 진행하기로 한 사항이 7월 중순으로 예정된 문산~개성 간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남북 간 철도 분야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주 경의선 연결구간 공동점검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통일부 등을 중

심으로 공동점검에 나설 인력을 선별하고 주요 점검 사항들을 정리하며 공동점검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에 이어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24일부터는 경의선 북측구간(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주 산림 분야의 협력사업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 4일 열린 산림협력분과회담에서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현장방문을 7월 중순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지난달 28일 도로협력분과회담을 열고 경의선 도로 개성~평양 구간과 동해선 도로 고성~원산 구간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현지 공동조사가 8월 초 경의선부터 시작되며 이어 동해선에서도 진행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간극 더 벌어지는 금리단층

## 고금리 내몰리는 서민 가게

(가계-가계, 가계-기업 대출 금리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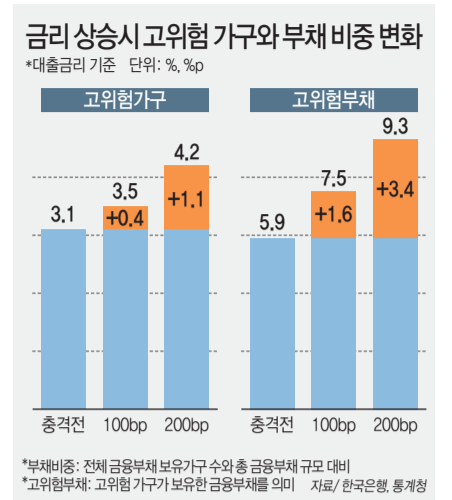
#. 1년 전 명예퇴직한 김한울 씨(51·가명). 재취업 자리를 찾아 봤지만 하루 일거리 밖에 없었다.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고자 큰 맘 먹고 계약을 했다. 가게를 알아보던 지난 여름까지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잘 하면 3%대 초반(변동금리 기준)에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계약 후 계약서를 들고 은행을 찾았더니 분위기가 달라졌다. 변동금리는 잘해봐야 3%대 후반, 고정금리는 아예 처음부터 4% 중반대나 가능하다고 했다. 이마저도 "신용등급이 좋아야 한다"는 상담원의 말에 한숨이 나왔다.

가뜩이나 고단한 서민들이 빚 무게에 삶이 힘들다.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하 상호저축은행 기준) 사이의 '금리단층' (가계-가계, 가계-기업 대출 금리 차)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데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대출심사가 강화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추가 금

리 인상 가능성을 저울질 중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합리적 신용평가 체계를 만드는 일에는 손을 놓고 쉽게 '돈놀이'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는 우리은행이 평균 3.63%다. 이외에 KEB하나은행 3.54%, 신한은행 3.55%, KB국민은행 3.49%로 3.5% 중반대 금리다. 지방은행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제주은행이 3.88%로 4%에 육박한다. 전북은행 3.81%, DGB대구은행 3.77%, 광주은행 3.78%, BNK부산은행 3.72% 등이다. BNK경남은행은 3.52%로 시중은행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 대표상품 평균 정기예금 금리는 6월 기준 평균 1.50% 수준에 머물고 있다. 12개월 상품은 평균 1.75%, 24개월과 36개월은 각각 1.78%, 1.81%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도

고금리 대출 비중이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대형 저축은행의 전체 가계신용대출 중 고금리 신용대출 비중(27% 이상 28% 미만)은 65.3%였다. 지난해 말 68.1%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이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고금리대출을 유지하면서 1분기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7.7%(1519억원) 늘어난 1조91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고금리대출 비중보다 중요한 문제는 저축은행들이 차주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고금리를 부과하는 영업형태라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단층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 금리는 연 3.75%(주택담보대출 금리 3.49%)였다. 같은 분기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14.59%(5.93%)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금리 편차도 10.84%포인트나 됐다. 두 금융권의 격차는 비교 가능한 시점인 2010년 1분기 13.19%포인트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2011년 18.08%포인트까지 치솟았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높은 단층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리 하락기에 낮아졌던 가계 부담이 다시 늘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보다는 가계를 대상으로 한 금리장사도 여전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사이 금리 편차는 5월 말 현재 6.34%포인트에 달했다. 올해 1월 7.02%포인트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5월 기준 0.09%포인트 편차다. 2월 잠시 역전된 것을 제외하면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앞으로가 걱정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시장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은행은 대출 여제를 위해 가산금리를 이전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5월 전



제 가계대출의 평균금리는 3.75%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또 한국은행이 머지않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은 더 확대되고 국내 기준금리는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00bp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3월 전체 부채가구의 3.1%(34만 6000가구)에서 3.5%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가 200b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 비중은 4.2%로 1.1%포인트 상승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 2주째 상승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나란히 연중 최고치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 당 평균 1.7원 오른 1천609.9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표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 중 성장률 1%p 하락땐 韓 수출 1.6%p 하락

중 대한 韓수출의존도 30% 근접  
중 경제성장률 둔화 연관성 커져

(중국 경제성장률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시나리오	중국예상 경제성장률	한국 수출증가율 하락 압력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압력
시나리오 1	6.4%	0.3%p	0.1%p
시나리오 2	5.9%	1.1%p	0.3%p
시나리오 3	5.7%	1.4%p	0.4%p
시나리오 4	4.4%	3.9%p	1.2%p
시나리오 5	2.4%	8.8%p	2.7%p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른 한국의 경제 성장 감소폭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더 높아졌으며 최근 3개년 연평균 한국의 대중국 경수수지 흑자 규모는 전체 경수수지 흑자의 절반에 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5일 '차이나 리스크, 교역 경로를 넘어선 경제위기 전염 가능성에 대비하자'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포인트, 한국 경제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 요인이 생긴다"고 추정했다. 특히 중국 경제 위기가 한국으로 전염될 가능성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격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 한국경제가 입는 피해 경로는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 경로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30%에 근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총수

출에서 대중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6.7%로 지난해 24.8%보다 늘었다. 이는 아세안(16.6%), 미국(11.5%), EU(9.8%), 일본(5.2%)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수출의존도가 높아 양국의 수출경기 연관성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중국은 2016년 1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추세에 있는데, 한국의 대중수출도 유사한 경로를 보인다. 투자 역시 지난해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신고기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수준이다. 2003년에는 45.5%까지 치솟기도 했다. 2000년 이후 누적 투자 기준으로 전산업의 14.3%, 제조업은 38.3%가 중국이다. 한국의 경수수지 흑자 절반 정도는 중국과의 대외거래를 통해 얻고 있다. 2015~2017년 기간 연평균 중국 경수수지 흑자

규모는 443억6000만 달러로 전체 흑자(945억5000만 달러)의 46.9%다. 서비스수지는 연평균 223억8000만 달러 적자인데, 대중 서비스수지는 35억3000만 달러 흑자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중국에 대해서는 60억5000만 달러 흑자다. 한국의 외국인 여행수입 절반 이상인 54.9%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나온다. 금융시장도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은 2016년 이후 최근까지 주가흐름이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국고채금리는 2014년 이후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관찰된다. 결국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면 한국 역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만약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대가 아닌 5.9%를 기록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양성호 기자 ysw@

# 근로시간단축 여파? "2020년까지 최대 34만명 고용 감소"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일자리를 나누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고 자본 가동률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고용이 줄고 소득재분배도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과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오는 2019년에는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은 고소득층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재분배 약화가 아닌 저소득층 소득 감소에 따른 소득재분배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 형태별로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2000개 감소하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일차적으로 임금과 가격변화의 크기에 따라 고용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호봉급 임금체계, 강성노조 등에 따라 임금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기업은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려야하지만, 이 경우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가 우려된다. /정연우 기자 yw964@

# 올해 자동차 등록대수 2300만대 돌파 예상

인구 2.3명 당 1대 보유한 셈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에 육박했다.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15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대비 약 1.6% 증가한 2288만2035대로

집계됐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연 3%대 증가율은 유지할 전망이다. 자동차 등록대수 연간 증가율은 2015년 4.3%에서 2016년 3.9%, 작년 3.3%에 이어 올해에는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그러나 1인 가구 증가, 소비자 세컨드카 수요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말 자동차 230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산차는 2084만대(91.1%), 수입차는 204만대(8.9%)로 수입차 점유율도 꾸준히 증가했다.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해 6월 8.0%에서 지난 6월 8.9%로 늘어났다. 친환경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는 39만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서 1.7%로 늘어났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무자비한 힘이  
나타났다!

통다리살 치킨버거

# T-REX

티렉스 ₩3,500

*New*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



TV 안보는 고객들... 홈쇼핑, 사업 다각화로 '고군분투'

GS SHOP 벤처투자 롯데홈쇼핑 PB 확대 CJ ENM 콘텐츠 공략

GS홈쇼핑

벤처투자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롯데홈쇼핑

자체 PB 'LBL' 주문금액 1600억

CJ ENM 오쇼핑 부문

드라마·뮤지컬 PPL 효과 '순항'



'GWG 펫스티발'에서 참가 스타트업들이 홍보부스를 마련 다이어티비, 하고 네트워킹하고 있는 모습. /GS홈쇼핑



/CJ ENM 미스터선사인 포스터. /CJ ENM



TV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고객들이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쇼핑을 한다. 인터넷·모바일의 발전과 함께 쇼핑의 무게중심도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더 이상 TV홈쇼핑 사업이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아니게 됐다.

이에 홈쇼핑업계는 TV를 대체하는 모바일에 투자하고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 구축을 통해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15일 업계 관계자들은 "짧은층으로 갈수록 TV 시청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판매비중이 TV에 편중된 홈쇼핑업계로서 위기 의식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대신 모바일을 강화하고 각자의 특색을 살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GS홈쇼핑, 벤처투자금액 2700억원

GS홈쇼핑은 혁신의 필요성을 깨닫고 일찌감치 '기업주도 벤처투자' (CVC)에 나섰다. 2011년부터 시작된 국내의 벤처기업 누적 투자 규모는 현재까지 투자기업 수 380여개, 총 투자금액 2700억원에 달한다. B2C/C2C, 플랫폼 등 커머스 영

역을 비롯 검색, 콘텐츠, 마케팅, O2O, 소셜네트워크 등 다방면에 걸쳐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업무 연관성이 높은 국내 스타트업에는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 중소상공인 기반 데이터 사업을 하는 '제로웹', 모바일 마케팅 성과분석툴을 서비스 하는 'ab180', 1시간 내 반려동물 사료 배달 서비스를 하는 '펫프렌즈', 다이어트 코칭 전문 서비스 '다노' 등이 대표적이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 9월 NHN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NHN페이코와 500억원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GS홈쇼핑이 보유하고 있던 NHN페이코 지분은 9.5%다. 모바일과 PC 커머스 시장에서 페이코의 빅 데이터를 통해 한층 더 효율적인 마케팅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성비 甲! 홈쇼핑 패션 PB 제품 각광

최근 고품질 소재와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홈쇼핑 자체 패션 브랜드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연간 주문액 천억 원을 기록하며 메가 브랜드로 성장한 'LBL(Life Better Life)'의 성공을 계기로 자체 패션 브랜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홈쇼핑에서 운영하는 자체 패션 브랜드는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서 기획 및 생산하고 있으며, 롯데홈쇼핑이 전량 직매입하여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 및 재고 부담까지 해결해 건강한 상생 유통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롯데홈쇼핑 최초의 패션 자체 브랜드인 'LBL'은 업계에서 가장 성공한 브랜

드로 자리잡았다. 2016년 론칭한 이후 주문금액 1600억 원을 돌파하며 홈쇼핑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브랜드로 평가 받고 있다. 당시 론칭 방송에서 3시간 동안 110억 원이 판매되며 화제를 모았다. 가성비 좋은 상품은 고객이 먼저 알아본다는 사실을 'LBL'이 입증했기 때문이다. 판매상품 평균 가격대도 40~50만원 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매진을 기록했다.

◆상업적 문화콘텐츠로 고객 공략

CJ오쇼핑은 CJ E&M과 합법해 CJ ENM으로 다시 태어났다. 홈쇼핑에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상업적 문화콘텐츠로 고객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다. 그리고 현재 tvN 드라마 '미스터 선사인'의 광고효과가 심상치 않다. 증권가에 따르면 '미스

터 선사인'은 국내 VOD와 간접광고(PPL) 등 드라마를 통한 간접 수익이 각각 30억원, 2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구한말을 배경으로 했지만, CJ오쇼핑의 자체 식기 브랜드 '오렌세'의 차탄을 등장시켰고, 블란서제빵소(파리바게뜨) 등 숨은 PPL을 곳곳에 노출시켰다. CJENM은 기존 홈쇼핑 사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J ENM 오쇼핑 부문은 다양한 컬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음악과 뮤지컬, 영화, 미술,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콘텐츠를 찾아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것. 최근에는 뮤지컬 '명성황후' 쇼케이스를 홈쇼핑 방송에서 선보임과 동시에 예매권을 판매했다.

국제적으로는 CJ ENM의 1인 창작자 지원사업 DIA TV(다이아 티비)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1인 미디어 글로벌 한류 주도 ▲신성장동력으로서의 V커머스 확장 ▲직업으로서의 크리에이터 가치 제고를 지속해 1인 창작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마케팅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인 창작자를 통한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공적 시장 진출 및 판로 확대를 돕는 동시에 크리에이터에게는 콘텐츠 조회수 수익 외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CJ ENM-중소기업-1인 창작자를 연계해 동반 성장을 통한 '삼각상생'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인터뷰 | '靑 SNS 보안 혁신 주장' 강장묵 남서울대 교수

“디지털 밀실정치 경계를...靑 SNS 무삭제 실록으로 남겨야”

청와대가 소셜미디어(SNS) 보안을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산업보안학과 교수(사진)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재발을 방지할 수단 중의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SNS 실록'을 내세웠다. 그가 생각하는 청와대 보안의 지향점을 묻기 위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 있는 강 교수와 카카오톡으로 인터뷰했다.

지인과 대화 '삭제불가' 기술 필요

-청와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삭제불가 소셜미디어를 만들고, 훗날 일반에 공개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 전용 소셜 미디어는 없지만, 업무용 전화기를 따로 두는 등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굳이 전용 SNS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국정농단 사태는 관련자들이 태블릿PC와 차명폰 등으로 자유롭게 소통하다 털리가 잡혔다. 공직자의 업무 효율은 존중하되,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는 체계적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다. 그만큼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된다. 청와대 근무자는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사기업의 부사장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다. 범국가적 정책을 다루는데 여전히 그회사 재직 당시 인적 그물망과 자원을 활용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청와대 인사들이 SNS를 아예 안 쓸 수

靑 개방형 국민 소통 늘리고  
인사의 폐쇄형 소통 최소화  
업무 투명성·객관성 보장하고  
일탈 방지하는 장치 고려해야

는 없다. 민간인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해당 민간인들도 청와대용 소셜미디어를 설치해 사용할 수는 없지 않은가.

“내 주장은 이들이 민간인이었을 때 사용하던 SNS를 이용할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국가 기록물 보관소에 저장하자는 말이다. 그 방식은 '폐쇄형 SNS 사용'에 제한된다. 청와대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공개형 SNS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일을 반대하지 않는다.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 라인 또는 텔레그램 계정을 개설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네이버나 카카오 근무 당시 믿고 소통할 수 있다고 여긴 지인 10여명을 불러, 청와대에서 논의되는 각종 기밀 사항을 의제 삼아 자문을 구하는 폐쇄적인 방을 만든다면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가정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총체적 보안 정책을 만들고, 이 프로세스를 국민들에게 뚝뚝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미 청와대는 블로그 등으로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단톡방 등 폐쇄형 SNS 사용에 대한 보안 정책 수립과 모니터링, 청와대 전용 소셜 미디어 등 밀실정치 방지 장치 개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개된 인력풀서 자문 구해야

-문제는 '지인 네트워크'라는 이야기인데, 민의가 반영된 정권이 그 색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의견도 있다.

“물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페이스북도 처음에는 느슨한 유대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유유상종 SNS'가 됐다. 코드인사 문제는 조선시대 당파싸움으로 거슬러가야 하니,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적폐 청산'을 위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 행정가, 법률가 등과 국가 정책을 상의하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위해 폐쇄형 SNS 단톡방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놓고, 특정 지인하고만 문제를 긴밀히 상의하는 업무 방식이 이어진다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는 '디지털 밀실정치'로 흐를 수 있다.”

-지인 네트워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공정한 인력풀'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심사, 평가, 자문, 위원 구성 등을 요청할 때 국가 인력풀에서 검색해 3배수의 전문가를 추천한다. 이 가운데 자동 발신 전화를 통해 무작위로 연락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 그룹이 협소하다 보니, 전문가로 불리는 몇몇 인물이 국가 과제나 위원회를 독차지해 정책을 좌우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기술 변화 발 맞춘 선제대응 필요

-한마디로 'SNS 실록을 구축할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소통은 얼마든지 SNS를 벗어난 곳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

“최근 10년의 소통 기술의 변화와 발전은 2000년대 보다 드라마틱하게 진보했다. 청와대가 언제까지나 국민청원 사이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진 등으로만 소통할 수는 없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올 때마다 그에 맞는 소통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개를 들 수 있는 역기능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역기능을 자세히 말해달라.

“공적 업무가 지나친 대중 영합주의가 되는 것은 아닌지,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자와만 소통하게 되지는 않는지, 해당 서비스에 소외된 계층에게는 어떤 소통을 해야 하는지, 새로운 소통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 방법은 SNS 실록이든 무엇이든 상관 없다. 다만 원칙은 분명하다. 청와대 개방형 국민 소통을 늘려야 한다. 청와대 인사의 폐쇄형 소통은 최소화하거나 기록물로 남겨, 수십년 뒤 사료로 이용해야 한다. 청와대가 보안 규정만 내세우지 말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안 수칙 준수 생활화에 노력해야 한다.”

/글·사진=이범중 기자 joker@

강장묵 교수는...

-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 ▲남서울대 빅데이터산업보안학과 교수
- ▲남서울대 빅데이터산업보안센터 센터장
- ▲과학기술부 주관 인공지능 R&D '가짜뉴스 찾기 경진대회' 장관상(2017년)
-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뉴미디어와 소통의 정치학' 선정 및 간행물위원회 수상(2011년)
- ▲서울시 주관 '공공정보를 활용한 앱 개발 경진대회' 장려상(2011년)



“중부세 피하고 노후생활도 보장”

# 수도권 중심 임대사업자 폭발적 증가

올 상반기 7.4만명 신규등록  
등록주택 18만채로 3배 급증  
전체 등록자는 33만명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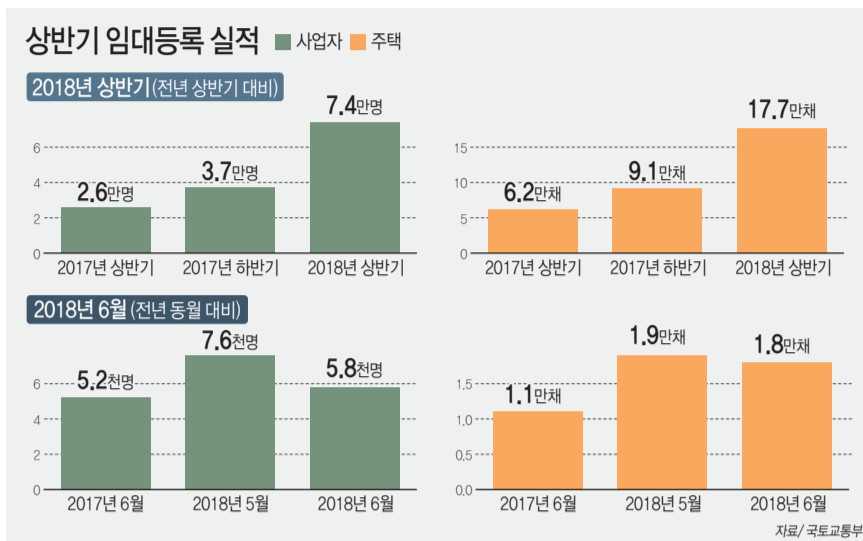
올 상반기 임대사업자 7만4000명이 등록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8배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전년 동기(2만6000명) 대비 2.8배, 전년 하반기(3만7000명) 대비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지난해 말 26만명에서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상반기 등록사업자의 82.2%(6만1000명)는 서울(3만명), 경기(2만3000명), 부산(4만7000명), 인천(2만8000명)에 밀집해 있다.

전체 등록사업자(33만명)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비슷하게 서울(12만명), 경기(9만6000명), 부산(2만2000명), 인천(1만3000명)에서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했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



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만7000채다. 지난해 상반기 6만2000채에 비해 2.9배, 지난해 하반기 9만1000채에 비해 1.9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9만3000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만4000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6월 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만2000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만5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종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4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조정된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 등록 비중이 20~40%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 등록된 17만7000채 중에서 서울이 6만6000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 4만9000채, 부산 1만5000채, 경북 5만5000채, 충남 5000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지난해 말 98만채에서 115만7000채로 늘었다.

6월 등록된 임대사업자 수는 5826명으로, 전년 동월(5219명) 대비 11.6% 증가했다.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7568채로, 전년 동월 등록분(1만1121채)에 비해 57.9% 증가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이 1만851채,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717채를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졌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아 중부세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투자박람회’ 개막식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해수부

## 해수부 투자의향서 95억원 성과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투자박람회’를 통해 95억원의 투자의향서와 3건의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5일 밝혔다.

‘해답의 바다,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투자 유치와 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200여 개 해양수산기업과 60여 개의 투자기관, 관련 과학기술 연구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람회에서 해수부는 사전 매칭과 투자설명회를 통해 수산물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업, 김 등 해조류를 생산하는 기업 등 3개 기업과 투자자 간 총 95억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세종=최신용 기자

## 농식품부 300억 농식품펀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하반기에 300억원(정부 190억 원, 민간 110억 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 경영체에 이미 투자된 지분의 인수 등 투자 회수 시장을 조성하는 20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신규로 결성하고, 100억원 규모의 농식품 6차산업 경영체 투자를 위한 특수펀드(6차산업화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분야의 세컨더리 펀드는 기존의 농식품 투자조합이 보유한 지분 뿐만 아니라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사모펀드(PEF) 등 다른 투자조합들이 보유한 농식품 경영체의 지분 인수도 허용해 농식품 투자 회수 및 재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 산재 신청절차 간소화... 신청건수 20% 급증

## 근로복지공,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상담전화 ‘콜백’ 서비스 등도 운영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출퇴근제해 보상제도 도입 및 산재신청 절차 간소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 보다 약 2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6월말 현재 산재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만618건(19.4%)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증가건수 중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제해 3016건 및 뇌심혈관질환 고시 개정으로

인한 재접수 362건을 제외하면 13.2%(7240건)가 증가한 것이다.

산재신청 증가의 가장 주된 요인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재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까지는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날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해 재해노동자들이 적기에 산재 인정을 받아 안심하고 치료를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사업주의 날인제도를 폐

지 등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산재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단은 노동자들의 산재신청 편의 제공을 위해 재해신청 상담전화 ‘콜백(Call-Back)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콜백 서비스란 재해를 당한 노동자 또는 그 가족이 공단 콜센터에 산재해당 여부, 처리 절차 등을 문의하면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게 되면, 사고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해 산재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단은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를 증감비율이 과거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인상(인하)되던 것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0%까지 인상(인하)하는 것으로 개정해 내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실적요율이란 과거 3년간 산업재해 발생실적(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로 앞으로는 특정 질병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무상 질병은 산재처리시 개별실적요율에서 제외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 현재, 30주년 슬로건 선정

헌법재판소가 창립 30주년 기념 슬로건으로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관계자는 “1988년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30년 동안 국민과 함께하며 법전 속의 헌법을 생활 속의 헌법으로 이끌어왔다”며 “앞으로도 헌법이 국민을 위한 최고의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5월 인터넷 공모를 통해 진행된 슬로건 공모에는 2576편이 응모됐다. 현재는 광고홍보학과 교수와 카피라이터 등 전문가 심사와 재판소 직원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슬로건을 확정했다. 현재는 9월 1일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이범종 기자 jaker@

## 해수부, 정부 최초 부처 내 ‘벤처조직’

해양수산부, 정부 최초로 부처 내 벤처조직을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16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벤처조직은 2개월 동안 ‘드론 활용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해수부는 정부부처 최초로 부처 내 벤처조직인 ‘조인트벤처 1호’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기존의 업무분장으로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자유롭게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그간 민간에서는 이를 통한 사업들이 많이 이뤄져 왔지만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의 여러 실·국과 소속 기관에서 선발된 조인트벤처 1호팀은 2개월간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한 가지 과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해수부 내 벤처조직 ‘조인트벤처1호’의 구성원인 박찬수(왼쪽) 사무관과 김경서 사무관. /해수부

과제는 지난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28개 제안) 중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으로 최종 확정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해양수산 현장은 불법어업 단속, 양식장·적조·해양쓰레기 관측, 연안·공유수면관리, 항만보안 등 드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

## ‘조인트벤처 1호’ 오늘 시범운영 드론 활용 현장업무 과제 추진

히, 드론을 응용한 정책수요 발굴은 범정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부처 내 다양한 부서·기관의 업무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인트벤처 1호 참여 인원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부서 추천과 지원 등을 통해 3명을 선발했으며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1~3년 차의 사무관 2명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주무관 1명이 참여하게 됐다. 이중 안현규 국립해양조사원 주무관은 2015년부터 등대·부표 등 해상교통시설 관리에 드론을 도입하기 위해 구상해온 바가 있어 조인트벤처 1호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인트벤처 1호에 참여하게 된 김경서 사무관은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인 만큼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 해수부 온라인콘텐츠 인력 공모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인력으로 역량 있는 민간전문가(전문임기제 나·다급)를 영입하기 위해 이달 23일까지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15일 해수부에 따르면 신규 채용은 작가(전문임기제 나급), 영상촬영·편집(전문임기제 다급), 그래픽 디자인(전문임기제 다급) 분야에서 각 1명씩 총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신문방송, 광고홍보, 방송영상, 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각 분야에 요구되는 관련분야 학위나 경력을 갖춰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7월 19일부터 23일까지(주말 제외)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해 해수부 운영지원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 광주시-광주신세계 ‘특급호텔’ 현안 밀려 뒷전 “물 건너 갔다”

광주시, 수정계획안 보완 요구  
신세계, 지구단위계획 제출 보류

광주시와 광주신세계가 추진했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민선 7기 들어 무관심 속에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도시철도 2호선·현대차 투자유치·어등산 개발사업 등 대형 현안들에 밀리면서 광주 유일의 특급호텔 건립사업이 아예 물거품 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15일 광주시와 광주신세계 등에 따르면 특급호텔 건립사업은 지난해 2월 광주신세계가 특급호텔과 함께 들어서는 복합쇼핑몰 판매시설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수정계획안을 제출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당시 광주시는 수정계획안을 보완해 줄 것을 신세계 측에 요구했지만 신세계 측은 지구단위계획을 시에 제출하지 않은 채 1년이 넘도록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신세계 측은 인근 중소기업들의 반대로 특급호텔 사업보다 복합쇼핑몰 논란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더 쏠린 데다 대통령선거·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부담이 커져 사업 추진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이 온

라인 쇼핑몰로 옮겨가면서 오프라인 매장 확대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진 점도 한 이유로 보인다.

전임 윤장현 시장이 그동안 몇 차례 재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이후 특급호텔과 관련해 광주시나 신세계 측 움직임은 없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다른 현안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다.

이용섭 시장이 당선된 후 꾸려진 광주 혁신위원회에서도 특급호텔 건립사업은 관심을 끌지 못했고 현안 브리핑에도 오르지 않았다.

다만 혁신위 문화관광체육분과위원회가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급호텔 등 부족한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인 제안을 하는 것에 그쳤다.

광주시는 현재도 신세계 측 지구단위계획 제출의 필요성만 언급할 뿐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애초 세계수영대회 개막에 맞춰 기획된 사업인데 이미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 특급호텔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신세계 측은 특급호텔 건립사업을 포기했다는 말은 없고 있지만 사실상 접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서울에서 신세계가 추진한 대형 호텔이 2곳이나 잇따라 문을 열 예정이

어서 지방 호텔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점과 무엇보다 지역 중소기업과 복합쇼핑몰에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 등으로 신세계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역 관광업계는 “신세계라는 브랜드를 놓치면 안 된다”며 여전히 특급호텔과 대형 쇼핑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광주시 관광협회 관계자는 “광주를 찾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전국 팔찌 수준인 광주의 관광 인프라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외지인들이 와서 자고 먹고 물건 사는 데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급호텔 건립사업은 현재 서구 광천동 이마트를 허물어 그 자리에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의 신축건물을 짓고 특급호텔과 백화점을 입점시킨다.

현재 백화점 건물은 터미널 내 유스퀘어와 연계한 영(YOUNG)관으로 운영하고 이마트는 인근에 새로 짓기로 했다.

전임 윤장현 시장의 제안으로 추진됐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힌 데다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중단됐다.

/통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 “SOC확대 등 국토균형발전위해 힘쓸 것”

인터뷰 윤영일 국회의원

권력구조 개편 개헌논의도 이뤄져야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득 안정,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국회의원은 16일 “SOC 확대와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과 지속적인 투자,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당 안팎에서 집권 여당과의 연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법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개혁 입법 연대를 구성해 주도권을 쥐고, 속도감 있게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을 필두로 민생과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여야 모두 일체 부분 합의를 이룬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이 중심이 되고, 순차적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방법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적폐청산은 물론 그동안 얻어보지 못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지속되는

경제와 민생 악화에 대한 대처 미흡과 부동산 정책,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책 등에 대해서는 불만의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배 정책, 개혁과 민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건전한 비판과 정책 대안을 수용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지역구인 진도군에 향후 세월호 선체를 보존하는 문제에 대해서 “선체 보존과 거치 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염원하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길 수 있는 방식과 지역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의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는 진도군민의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국민해양안전관 개관 예정지인 진도군에 보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남 진도= 김남중 기자 5555kni@



민주평화당 윤영일 최고위원

# 인천시,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견... 방역 강화

DMS서 작은빨간집모기 첫 발견  
방충망·모기장 등 방제 준수 당부

인천시(시장 박남춘)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내 설치한 DMS(자동모기계측기)에서 올해 들어 처음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DMS를 지난해 인천 관내 120지점에 설치해 운영 중이며 보건소 방제 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지난 9~10일 사이에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처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모기방제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DMS는 이산화탄소를 유인제로 해 암모기만 선택적으로 유인한 후 개체수를 자동으로 계측하는 장비다.

일본뇌염은 잠복기가 7~14일이며 대부분 무증상 또는 발열이나 두통과 같은 가



작은빨간집모기

벼운 증상이나, 감염자의 250명 중 약 1명 정도가 심한 증상을 보이며 급성 뇌염, 수막염 등에 이환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 3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첫 번째로 확인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내렸으며, 지난 6일 전남지역에서 모기의 하루평균 개체수 중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 전체 50% 이상 분류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 상황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관내 일본



DMS(자동모기계측기, Digital Mosquito monitoring System)

뇌염 모기가 첫 발견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피피제를 사용할 것과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는 등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시원한 물대포로 무더위 날려요”

휴일인 15일 오후 광주 북구 월출동 시민의숲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무더위 속에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날 광주와 전남 대부분 시군에는 6일째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연합뉴스

평화시대 경기도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도,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중심’”

민선 7기 경기도가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맞아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평화시대의 경기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협력시대-경기가 할 일’을 주제로 열릴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새로운경기위원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세종연구소, 대진대DMZ연구소,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한주 새로운경기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개회사,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김진홍 경기도 행정부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평화분야 전문가와 정책대표, 공직자, 도민들이 모여 열린 논의를 벌일 전망이다.

특히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나서

‘한반도 평화번영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기초단체를, 이화영 경기도 연정(평화)부지사가 ‘평화협력의 시대-경기도가 할 일’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도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어 흥현의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 박근식 중앙대학교, 조성규 대진대 교수, 박영민 대진대 DMZ연구원 부원장, 이재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한모니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박철수 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장 등 7명의 전문가가 나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한다.

끝으로 발제자와 제안자,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종합 토론회’ 형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 국회의원) 새로운 경기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으로 참여한다.

/경기 의정부=고성철 기자 ksc@

영광소방서

# 물놀이 시민구조대 발대

영광소방서(서장 박주익)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서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119시민수상구조대란 지역 내 해수욕장, 저수지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소방대원과 민간자원봉



119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

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다.

올해는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간 가마미해수욕장, 돌머리해수욕장, 안악해변, 불갑저수지를 중심으로 고정·순찰

근무를 하면서 안전활동, 응급처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및 유사시 신속한 인명 구조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남 영광=은후사 기자 ehs1203@





좋은 콜레스테롤 올려주고

활성형 모나콜린K!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나쁜 콜레스테롤 내려주는

모나콜린K의 힘

홍국쌀 발효과정에서 분비되는 신비의 붉은 빛 물질 모나콜린K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혈관 청소를 돕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콜레스테롤을 유지시킵니다.

기능 및 성분 함량 (1일 1캡슐 기준)

모나콜린K 6mg

마그네슘 91mg (부원료)

마늘동결건조분말 100mg (부원료)





# “비듬·탈모 고민 확 날려요”... 기능성 샴푸시장 커진다

장마에 이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두피, 모발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뷰티 업계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제품의 기능, 제형을 세분화하고, 두피 타입별 제품을 출시하는 등 헤어 카테고리 강화에 힘쓰며 고객 사로잡기에 나섰다.

샴푸에 대한 인식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머리를 감는 용도에 그쳤던 때를 지나, 두피와 모발을 케어하는 기능성 제품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다. 피부 타입, 톤에 따라 골라 쓰는 화장품처럼 두피 타입, 모발의 상태 등을 고려해 알맞은 제품을 골라 쓰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제품의 제형별 변화도 눈에 띄게 늘었다. 액체 형태를 벗어나 고체, 스프레이형 샴푸들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은 더욱 넓어졌다.

◆**여름철 두피, 각질·모공 잡는 제품으로**  
두피는 다른 피부 부위보다 피지선과 땀샘이 더욱 많은 데다가, 모공의 크기 역시 다른 부위의 모공 대비 2배 가량 크다. 또한 두피 상태는 얼굴 피부의 상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두피 관리의 시작은 각질 제거부터다.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각질이나 노폐물들이 피부 표면을 막을 경우, 헤어제품의 성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피지가 과다 분비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두피 타입·제형·기능 등 라인 세분화 제품별 사용법 제각각 “잘 알고 써야”  
여름철, 노폐물 제거 스크럽샴푸 권장

각질 제거를 위해선 스크럽 기능이 있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스크럽을 하면 비듬 등이 제거돼 두피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유수분 균형까지 알맞게 맞출 수 있다.

모공 속에 쌓인 피지, 노폐물까지 잡아주는 고밀도 클렌징 제품도 있다. 여름철에는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영양 공급 기능까지 더한 제품들이 출시되는 만큼, 제품별 기능을 비교·구매하는 것이 용이하다.

‘제로톡스’ 4종은 고밀도 흡착 딥클렌징 기능을 강조한 제품으로 유칼립투스, 퀴노아, 케일&사과, 라즈베리&크렌베리 등 4가지 슈퍼 성분을 이용해 두피, 모발 상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다양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윤채의 ‘스칼프 퓨어니스 씨솔트 스크럽 샴푸’는 씨솔트를 23.2% 함유하고 있는 딥 클렌징 스페셜 제



사진/픽스타



프레시랩 제로톡스 샴푸 4종. /아모레퍼시픽

품이다. 씨솔트 성분이 모공 속에 있는 두피의 묵은 피지와 노폐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며, 해양심층수의 보습 효과로 촉촉한 두피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

◆**기능성 샴푸, 알고 써야**

비듬, 탈모, 얇은 모발 등을 위한 맞춤형 제품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는 ‘홈케어’가 각광받으면서, 기능성 샴푸 제품들도 몇 년 전에 비해 급증했다. 그러나 사용법을 제대로 알



▶러쉬의 ‘샴푸바’.

고 쓰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최근 출시된 제품들이 제품의 효과 만큼이나 사용법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지성 두피의 경우 매일 머리를 감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성 전용 샴푸의 경우 매일 사용하기 보다 주 2~3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듀크레이의 ‘스쿠아눔 지성 비듬 샴푸’의 경우에도 주 2~3회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첫 번째 샴푸에서 두피와 모발을 깨끗이 씻어낸 뒤, 두 번째 샴푸에서 3분간 가볍게 두피 마사지를 한 후 헹궈내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탈모와 건조한 모발, 비듬 등에 최적화된 제품도 쏟아진다. 최근에는 탈모의 증상에 따른 세분화된 제품군을 출시하거나, 두피나 모발 상태에 따라 전문화된 처방을 강조하는 제품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닥터그루트의 ‘더마솔루션’이 대표적이다. 최근 출시된 ‘더마솔루션’ 리뉴얼 제품은 탈모, 건조한 모발, 두피비듬 관리에 보다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더마솔루션의 경우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동시에 사용하면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로, 주력 상품인 ‘힘없는 모발용 샴푸/트리트먼트’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을 ‘보고 완료’한 기능성 제품으로, 동시 사용 시 끊어짐에 의한 모발 감소를 약 75% 개선해준다.

◆**고체·스프레이·취향따라 선택 가능**

액체형 샴푸가 아닌 고체, 스프레이형 제품들도 속속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 고체형 샴푸는 기존의 액상형 제품 형태를 벗어난 제품으로 주목 받는다. 특히 액체 형태의 제품이 제한되는 여행시에 편리한 휴대성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고체형 제품으로는 러쉬의 고체형 샴푸인 ‘샴푸바’나 샴푸, 세안, 보디까지 한 번에 클렌징 할 수 있는 올인원 클렌징 제품 비오빔 토탈 액션 클렌징바 등이 있다.

드라이 샴푸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머리에 미세한 파우더를 분사해 뽕뽕송송한 머릿결을 유지해주는 제품이다.

클로란의 ‘네클 드라이 샴푸’의 경우, 두피 피지를 강력 흡착해 모발의 기름기를 완화해준다. 드라이 샴푸의 경우 외출 중에도 수시로 뿌릴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꾸준한 판매율 성장을 보이고 있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월드서포터즈 ‘테이스트-K’ 2기 단체사진. /aT

## aT 월드서포터즈 ‘테이스트-K’ 2기 발대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위해 재한외국인으로 구성된 월드 서포터즈 ‘테이스트-K’ 2기 서포터즈를 발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월드서포터즈 테이스트-K는 브라질, 카자흐스탄, 남아공, 폴란드 등 20여개 시장다변화 대상 국가에서 온 유학생, 주재원, 셰프, 통역사 등 한국 식품 및 식문화에 애정이 많은 다양한 주한 외국인 200여명으로 구성됐다.

aT는 국내에 거주하는 세계인들에게

눈을 돌려 이들로 하여금 수출업체들의 시장개척을 위한 테이스트-K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상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한국에서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체험한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 식품과 식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친근함을 바탕으로 한국 식품 소비 중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 中企 CEO들의 휴가 추천도서 1위 ‘아메바 경영’

경제·경영분야 도서 추천 높아  
80% “여름휴가 국내서 보낼 것”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여름 휴가 추천도서로 ‘아메바경영’, ‘한권으로 정리하는 4차산업혁명’, ‘위기를 경영하라’ 등 경제·경영서를 주로 꼽았다.

이들 중기 CEO들은 10명 중 8명 가량은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보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CEO 여름 휴가계획’을 조사해 15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73.3%)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6.7%는 ‘없다’고 답했다.

‘없다’고 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업무 때문에’가 52.6%로 가장 많았다. 또 휴가를 ‘연중 수시로 사용해 정기 휴가가 특별히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46.3%로 나타났다.

휴가는 ‘명소·휴양지 방문’이 65%로 가장 많았다.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19.5%), ‘고향·친지 방문’(6.5%) 등이 뒤를 이었다.

휴가는 84.1%가 국내를 택했다. 휴가 기간은 평균 3.9일로 나타난 가운데 3일을 쉬겠다는 답변이 42.7%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93.7%는 여름 휴가를 통해 연중 정기적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 CEO의 기업경영 또는 임직원의 업무 집중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휴가 중 읽을 만한 도서로는 ‘경제·경영분야’의 도서를 가장 많이 추천(45.6%)했다.

인문·교양의 경우엔 ‘인간의 품격’, ‘말의 품격’, ‘시민의 교양’ 등을 추천했다.

또 CEO들은 ‘국내에서 휴가 보내기’에 대해 응답자의 59.0%가 내수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내수진작에 별다른 효과 없을 것’이라는 답변도 41.0%에 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휴가 시 읽을 만한 도서 추천》		
분야	추천도서(추천인 수)	발행연도
경제 경영	아메바경영(6)	2017
	한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5)	2018
	위기를 경영하라(4)	2015
	틈새경제(4)	2018
	행동하는 용기(4)	2015
	경영의 모험(3)	2015
	play! 회계카페(2)	2014
	거래의 기술(2)	2016
	경영자의 역할(2)	2009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리더(2)	2007
	머니(2)	2018
	미래의 속도(2)	2016
불타는 투혼(2)	2014	
외환관련 여신(2)	2018	
초유량 기업의 조건(2)	2005	

2인 이상 추천 도서, 자료=중기중앙회·사진=픽스타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4곳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다.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 청호나이스 “에어컨도 렌탈하고 관리받으세요”

스탠드형 ‘청호 하이파 F1800’

청호나이스가 에어컨 렌탈을 시작했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4월 에어컨을 첫 출시하고 관련 시장에 본격 뛰어들어 이후 스탠드형 모델 ‘청호 하이파 에어컨 F1800’ (사진)을 렌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약 18평형 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냉방, 난방, 제습, 송풍의 ‘4 in 1 멀티기능’, 세균번식을 억제하는 셀프클린 자동건조 기능, 실내온도와 설정온도간 차이를 자동으로 감지해 바람 세기를 조절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월 렌탈료는 등록비 10만원 기준으로 1년차가 8만5900원, 2년차 7만5900원, 3~4년차 6만5900원(의무사용기간 사용보



장 특별규정)으로의무사용기간 및 소유권 이전은 40개월이다.

또한 렌탈 사용 고객은 연 1회씩 에어컨 케어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식탁의 주연으로 부상한 ‘햄’

# ‘The더건강한햄’ 3000억 메가브랜드로 키운다



진천 육가공공장서 ‘CJ Voyage’ 행사 소비자 트렌드 발맞춰 라인업 다양화

CJ제일제당은 2022년까지 자사의 프리미엄 냉장햄 브랜드 ‘The더건강한 햄’을 3000억원 브랜드로 키운다고 15일 밝혔다. 또 현재 9400억원의 국내 냉장햄 시장을 2020년 1조1000억원대, 2022년에는 1조3000억원대까지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CJ제일제당은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육가공공장에서 ‘CJ Voyage’ 행사를 개최하고, 신제품 ‘The더건강한 바이스부어스트’와 ‘The더건강한 이탈리아통베이컨’의 생산 공정을 공개했다.

김숙진 CJ제일제당 신선마케팅담당 부장은 “햄이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서구처럼 부부나 가족의 주말 휴브런치, 흡술, 휴파티, 캠핑 등 메인 요리로 다양하게 즐기는 새로운 식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출시한 메인 메뉴형 신제품 ‘The더건강한 바이스부어스트’와 ‘The더건강한 이탈리아통베이컨’을 중심으로 냉장햄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5월 CJ제일제당은 ‘The더건강



CJ제일제당 ‘The더건강한 바이스부어스트’ 생산 현장(왼쪽)과 CJ제일제당 ‘The더건강한 바이스부어스트’와 ‘The더건강한 이탈리아통베이컨’ /CJ제일제당



한 햄’을 선보였다. 당시 국민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 및 웰빙 트렌드가 급부상하면서 돼지고기, 소고기 등 신선육 소비는 증가하고 냉장햄 소비는 위축되던 시기였다. 특히 제조과정에 들어가는 식품 첨가물 이슈가 불거져 ‘햄이 맛은 있지만 아이에게 주기는 꺼려지는 식품’이라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CJ제일제당은 시장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돈육 함량 90% 이상’과 ‘무(無)첨가’라는 카드로 승부수를 던졌다. 5년간의 R&D 연구개발 끝에 2010년 당시 전분과 합성야질산나트륨, 합성보존료(소브산칼륨), 합성착향료, 합성산화방지제 등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5가지 첨가물을 빼고, 돈육 함량을 90% 이상으로 높은 프리미엄 냉장햄 ‘The더건강한 햄’을 내놓았다.

런칭 1년 만에 매출 400억원을 돌파했으며, 분절햄, 후랑크소시지, 라운드햄 3개 제품으로 시작했던 제품 라인업도 비엔나소시지, 슬라이스햄, 김밥햄, 베이컨, 베이컨스테이크 등으로 대폭 늘렸다. 이후 경쟁업계에서는 ‘The더건강한 햄’과 같은 콘셉트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CJ제일제당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브랜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햄이 단순히 밥 반찬이나 고기 대체 제품의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의 새로운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필요한 제품으로 포지셔닝해, 이제는 ‘햄을 메인 메뉴로 즐기는 식문화’를 창출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생산과정을 공개한 ‘The더건강한 바이스부어스트’와 ‘The더건강한 이

탈리안통베이컨’은 최근 또다시 변화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후랑크와 베이컨 카테고리 제품이다. 냉장햄 소비가 사각형, 비엔나 등 아이 반찬용 위주 제품에서 후랑크, 베이컨 등 조리가 간편한 메뉴형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발맞춰 출시됐다. 1~2인 가구,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와 자신을 위한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미코노미(Meconomy)’ 트렌드 확산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근사한 ‘메인 메뉴’로 즐길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제품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The더건강한 바이스부어스트’는 ‘하얀 소시지’라는 의미의 독일 바이에른 지방 전통 후랑크를 구현한 제품이다. 허브와 후추의 풍부한 맛과 향이 일품으로, 스

탐 공정 방식으로 만들어 담백하며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특징이다. ‘The더건강한 이탈리아통베이컨’은 이탈리아식 베이컨 판체타(Pancetta)의 레시피를 적용한 제품이다. 미국, 유럽 등 서구에서 볼 수 있었던 두툼하고 먹음직스러운 큰 덩어리 베이컨에 10시간 숙성 과정과 참나무 훈연을 거쳐 토핑으로 향긋한 후추, 바질과 갈릭 등 천연 향신료를 올렸다.

서양에서는 햄과 소시지는 다양한 시즈닝과 고기가 어우러진 ‘하나의 제대로 된 메뉴(One Dish)’로 이미 인식되고 있다. 해외 육가공 제조업체들도 시장 역신장과 다변화된 소비자 트렌드에 따라 B2B 사업 강화, HMR 밀킷(Meal kit) 사업 강화는 물론 육가공 제품에 대한 보다 다양한 맛과 형태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육가공 시장을 둘러싼 새로운 소비자 트렌드가 포착되고 있다.

김숙진 부장은 “식탁의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서 ‘The더건강한 바이스부어스트’와 ‘The더건강한 이탈리아통베이컨’을 통해 시장 성장에 가속도를 붙여 2020년 1조1000억원대, 2022년에는 1조3000억원 규모까지 냉장햄 시장을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특히 ‘The더건강한 햄’을 2020년 2000억원대, 2022년까지 매출 3000억원대 메가 브랜드로 육성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연남동 ‘이마트 하우스’에 놀러오세요~”

이마트, 에어비앤비와 ‘맛손’ 판매 제품으로 꾸민 컨셉하우스



이마트 하우스

이마트가 글로벌 여행 커뮤니티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손잡고 내달 4일까지 약 2주간 서울 연남동에 ‘이마트 하우스’를 운영한다.

거실과 주방, 방과 서재로 이루어진 약 66㎡ 규모의 ‘이마트 하우스’는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구, 생활용품, 가전 등으로 채워진 컨셉하우스다.

주방에 가면 ‘노브랜드 전자레인지’와 ‘러빙홈’의 화이트 식기 시리즈를 사용할 수 있고, 침실로 가면 ‘사이럴라’의 쿠션과 거실화가 놓여져 있으며, 화장대에서는 쉐넨스의 헤어오일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서재에는 일렉트마트에서 판매하는 북마스터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식이다.

이렇게 꾸며진 ‘이마트 하우스’는 오픈 기간 동안 매일 오후 2시~6시(월요일 제외)신청자에 한해 자유롭게 구경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마트x에어비앤비의 이벤트 룸

페이지에서 에어비앤비의 호스트를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를 열어, 1명에게는 ‘이마트 하우스’의 디자인이 직접 빈방을 꾸며주는 혜택을, 200명을 대상으로 이마트와 에어비앤비 각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며, 호스팅을 위한 1대1코칭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이마트 하우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실제 생활공간에 이마트 상품을 적용하여 상품의 실용성을 강조하고 고객들에게는 인테리어에 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이마트 하우스’가 하나의 쇼룸인 셈이다.

이마트와 함께 ‘이마트 하우스’를 선보이는 에어비앤비는 이마트의 잠재고객인 2030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호도가 높고, 단순한 쇼핑공간이 아닌 고객의 시간과 삶을 공유한다는 이마트의 브랜드 가치와 숙박을 넘어 여행에서의 삶을 제공하는 에어비앤비의 브랜드 가치가 잘 맞아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담당은 “실제 주거공간에 이마트 상품을 배치해 디자인함으로써 상품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이번 이마트 하우스를 기획했다”며, “이마트 하우스를 통해 이마트는 다양한 상품 및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들은 인테리어 팁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백화점이 무역센터점 등 경인지역 11개 점포에서 일반 오이와 마늘의 3~6배 크기의 토종 품종인 약속농장의 ‘토종 오이·코끼리 마늘’을 판매한다고 15일 전했다. ‘토종 오이’는 일반 오이보다 굵은 생김새에 비해 더 아삭한 식감과 진한 향이 특징이며, ‘코끼리 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더 크고 향이 강하지 않아 굵거나 삶으면 감자와 같은 순한 맛이 난다. 가격은 토종 오이(1개) 1200~1500원, 코끼리 마늘 (500g~1kg) 12000~20000원이다. /현대백화점

## 현대홈쇼핑 ‘북미정상회담’ 기념 메달 첫 선

현대홈쇼핑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정상회담’ 기념 메달(사진)을 국내 유통채널 중 유일하게 선보인다.



현대홈쇼핑과 현대머물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조폐국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기념해 싱가포르 조폐국에서 제작한 기념 메달을 오는 17일부터 판매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17일 오전 11시40분부터 30분간 예약 판매 특별 방송을 진행한다.

현대홈쇼핑 측은 “이번 기념 메달은 싱가포르 조폐국이 ‘북미정상회담’을 기념해 전세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금메달 1500점과 은메달 7500점만 한정 생산될 예정”이라며 “이 중 금메달

500점과 은메달 1000점을 현대홈쇼핑이 확보해 TV와 온라인(H몰)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기념 메달 앞면은 미국과 북한 양국의 국기(성조기·인공기)가 좌우에 들어가 있으며, 테두리에는 미국과 북한의 공식 영문 국호가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합의서를 배경으로 두 정상이 손을 맞잡은 모습이 디자인돼 있다. 테두리 위아래에 정상회담 일자(12 JUNE 2018)와 정상회담 명칭(SINGAPORE SUMMIT, 싱가포르 회담)이 표기돼 있다. /신원선 기자

## G마켓, 신세계와 명품가전 브랜드 할인전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이 1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몰과 함께 ‘신세계 가전 슈퍼 에디션’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다이슨, 발뮤다, 밀레 등 가전 명품 브랜드 제품을 최대 33% 할인가에 판매하며 써큘레이터, 건조기, 제습기 등 여름 가전을 포함한 필수 아이템

들을 단독 특가에 선보인다. 푸집한 추가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전 고객에게 5% 중복할인쿠폰과 가전 카테고리 전용 10% 중복할인쿠폰을 매일 2장씩 지급하고,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스마일캐시 3%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스마일클럽 회원에게는 7% 중복할인쿠폰 및

스마일캐시 5% 추가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대표 상품으로 16일에는 ‘다이슨 무선 청소기 V8 카본파이버’를 쿠폰 적용가로 30% 할인된 69만9000원에, ‘다이슨 IoT 공기청정기 선풍기 TP03’을 쿠폰 적용가로 33% 할인된 59만9000원에 판매한다. ‘LG전자 트롬 건조기 듀얼인버터 콘덴서(14kg) RH14WH’ 제품도 169만9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 기아차, 올스타전 MVP 김하성에 'K5' 증정

## KBO 올스타전 연계 마케팅

울산문수야구장에서 진행된 '2018 KBO 리그 올스타전'의 대미를 대한민국 대표 중형세단 '더 뉴 K5'가 장식했다. 기아차는 다양하고 색다른 마케팅으로 야구팬들에게 젊고 역동적인 자사 브랜드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기아차는 '2018 KBO 리그 올스타전' 연계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14일 울산문수야구장에서 열린 '2018 KBO 리그 올스타전'에서 ▲시구자 에스코트 차량으로 '올 뉴 K3' 운영 ▲'미스터 올스타(MVP)'에게 '더 뉴 K5' 증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우선 기아차는 경기 시구자로 나선 강병철 전 감독을 위해 '올 뉴 K3'를 에스코트 차량으로 제공했다. 올 뉴 K3는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 등급 최고 수준의 안전 사양과 15.2km/L의 경차급 연비 등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준중형 세단이다.



기아차 '더 뉴 K5' 차량과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인 김하성 선수의 모습.

/기아차

드림탑과 나눔탑으로 나뉘어 진행된 올스타전에서 3타수 2안타(2홈런) 4타점 3득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한 넥센 김하성 선수가 '미스터 올스타(MVP)'로 선정됐다. 기아차는 더 뉴 K5를 부상으로 수여했다. 기아차의 더 뉴 K5는 ▲음각 타입 세로바 라디에이터 그릴, 가로형 레이아웃 LED 안개등 등 진보된 디자

인 ▲국내 중형세단 최초로 적용된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및 AI 기반 서버형 음성 인식 기술 ▲운전석·동승석 어드밴스드 에어백 등 우수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기아차는 2012년부터 7년 연속 KBO 자동차부문 공식 후원사로 활동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 코카콜라가 지난 14일 환경재단과 함께 '2018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4차 과정'을 진행했다.

/한국코카콜라

## 코카콜라-환경재단

### 어린이 그린리더십 "습지 체험해요"

한국 코카콜라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올해 국내 습지 체험 학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국 코카콜라는 지난 14일 환경재단과 함께 강원도 강릉시 경포가 시업습지 일대에서 '2018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4차 과정'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코카콜라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으로 습지 탐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습지의 중요성과 습지 보존 노력을 배우고, 나아가 물의 가치 및 소중함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경포 가시연습지는 과거 농경지로 개간되면서 한때 생태계가 파괴됐으나 지난 2009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실시된 이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가시연이 반세기 만에 다시 복원됐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습지해설사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경포가 시업습지를 둘러보며 수생곤충 및 식물 탐사, 나뭇배 체험 등을 통해 온 몸으로 습지를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또 다양한 환경 관련 퀴즈 및 미션을 수행하는 '에코 러닝맨'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 보호에 대해 보다 재미있게 접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소감 나누기 및 기념품 전달을 끝으로 이날의 모든 일정을 마쳤다.

박정재 한국 코카콜라 상무는 "그린리더십 과정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습지 탐사를 통해 물과 습지의 소중함을 깨닫고 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전파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한국서부발전 농어촌 상생기금 70억 출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한국서부발전은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부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전소 온배수 활용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된 지능형 스마트팜 구축, 태안 지역 초·중·고교생 학습 멘토링 사업 등에 70

억원을 출연한다. 또, 발전소 주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가 방학기간동안 지역에 거주하며, 학습·진로·정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해피위피스쿨'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협력재단 김형호 사무총장(왼쪽 다섯번째부터)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 오늘의 운세

7월 16일 (음 6월 4일)

http://www.saju4000.com



48년생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좋다. 60년생 머리가 맑으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다. 72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말을 조심. 84년생 생각을 바꾸면 의외의 곳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49년생 남동쪽으로 길을 나서면 행운이 있다. 61년생 변화가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73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85년생 작은 흠이라도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 주의.



50년생 의외의 조력자가 나타난다. 62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이 다스려라. 74년생 가족 간의 불화가 있을 수 있다. 86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나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



51년생 어제의 동지가 적으로 바뀌니 영원한 것은 없다. 63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아 온다. 75년생 친구가 형제보다 낫다. 87년생 숨겨왔던 숨겨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이다.



52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거래를 해도 좋다. 64년생 오늘 준비해야 내일이 기다려지는 법이다. 76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보라. 88년생 우물 속 개구리는 더 큰 하늘을 보지 못하고 도전하지 않는다.



53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나에게 해가 되어 돌아온다. 65년생 격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77년생 먹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89년생 행복한 가정이 나의 발전의 원동력을 잊지 말자.



54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 날. 66년생 자손에게 기쁜 일이 찾아오니 마음이 즐겁다. 78년생 심신이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90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이 생기니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55년생 소금장사 나서는 데 비 오는 격. 67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나는 날이다. 79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이다. 91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을 수 있다.



56년생 나이 든다는 것이 서글퍼지는 날이다. 68년생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야 만사가 편하다. 80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서 명예가 높아지는 날. 92년생 먼 곳에서 기쁜 소식이오니 고민이 해결된다.



57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야망을 갖자. 6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81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개가 필요한 날. 93년생 힘든 일을 부모님의 조언으로 해결하라.



58년생 성공이 지척인듯하나 마음만 바쁘다. 70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82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일을 처리. 94년생 구름 속의 태양을 의심하지 말고 노력을 하면 해결된다.



59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할 만큼 운이 좋은 날. 71년생 지나간 길에 아쉬움을 두지 마라. 83년생 마음먹은 대로 직진. 95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으나 편히 쉬는 곳은 아니니 마음이 아프다.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2	4	
2			3	5		9		
			6	3				
	6	4				3	7	
	5	7				2		6
				6		7	2	
8	2		5		6			
4			2	9	1			

							4	
		2	4				9	3
		4	6		3	7		
7	9		1					
	5		4				2	
				7			1	5
		3	8		1	6		
1		5			9	3		
7								

스도쿠 정답								
8	5	1	6	2	4	7	9	3
4	9	7	3	5	1	2	8	6
2	1	6	9	7	8	5	3	4
9	1	2	8	6	4	5	7	3
1	4	5	2	1	7	9	6	8
6	8	7	4	9	5	1	2	3
1	6	8	5	4	9	7	2	3
7	2	4	1	2	6	8	9	5
5	9	1	7	8	2	6	1	4
6	1	5	7	4	2	9	1	8
2	8	4	6	9	1	5	7	3
7	1	9	1	5	8	4	6	2
5	6	1	2	1	4	8	9	7
1	2	8	9	7	6	1	5	4
9	4	7	8	1	5	6	2	3
1	5	1	4	2	9	7	8	6
4	9	6	1	8	7	2	1	5
8	7	2	5	6	1	4	9	3

문제 제공= 보누스



## 김상회의四季

### 도처에 만연한 갑질

대한민국 사회에 갑질 행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되었다. 사실 갑질이란 것이 무엇인가? 남보다 권력이나 재력이 좀 더 있다고 도에 지나친 언사는 물론 안하무인격 행태를 일삼는 것을 말하는 것이리라.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행태,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도에 지나친 언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기실 갑질의 형태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그 역사 또한 생각보다 오래되었을 것이다. 과거 전제주의 사회에서 흔히 귀족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살아온 양식 자체는 그야말로 갑질 그 자체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배층이 아니라면 경제적 혜택은 물론 재판권이나 각종 분야에서 상대적 자유가 없었다. 조선 사회만 하더라도 왕이나 왕가의 거처인 궁전이나 누각 등의 크기를 비록 재상이라 할지라도 그 크기를 능가할 수 없었음은 물론, 의복이나 의관의 크기와 색깔 역시 뛰어넘어서는 안됐던 것이다.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이는 왕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궤양죄에 해당되어 모반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정도이다. 이러한 의식은 이미 공자가 거주했던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있어왔던 개념이었다. 논어 중 어느 편인지 정확히 생각나진 않지만 제후의 의복 색과 화려함이 천자의 의복 색깔을 따라했다 하여 공자가 한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인간의 신분 에 귀천이 있다고 철칙 같이 믿던 시절에야 당연한 사고방식이었을 수도 있지만 각각의 인권이 동등하다는 만민 평등사상이 지배적인 현대의 눈으로 볼 때는 힘을 가진 자의 합리화일 뿐이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에서는 재벌이나 정치인 등 사회적 권위와 능력을 가진 이들, 즉 상류층이라 불리는 이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지금도 당연한 필요 덕목이다. 평상시에는 평민들을 부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도 나라가 위협에 처하면 가장 먼저 앞서서 출전수범하여 위협을 감수하며 나라를 지켰던 것이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의 당연한 처신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신분의 향유와 혜택에 비례하는 윤리적 의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주변에 만연한 갑질은 어떤 면에서는 재벌이나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나 행태뿐만이 아니라 소시민적인 일상생활에서도 행해지기도 한다. 친함을 빙자하여 친구나 동료들의 호의를 교묘하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 보여서다. 나 자신 역시 알게 모르게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소통과 불통



**김민** 소장의  
당당평평

언제부터인가 '소통'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적잖이 사용되고 있다. 단순한 의미일수도 있겠지만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사람 간의 소통, 비즈니스 관계의 소통,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소통 등 결국 인생의 성공여부와 인간사의 시종(始終)은 소통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면적 인식만 있을 뿐 정확한 그 뜻과 의미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통'이기도 하다. 상대에게 일반적으로 자신의 말을 하고 자신만을 인식시키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그것은 '강요'일 뿐이고 상대를 피곤하게 만들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불통'이다.

특정 아이템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상대에게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랑과 특징만 얘기하는 것은 영업을 하는 신입사원들에게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당연히 판매율과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수요자 즉 고객의 입장에서 아무리 우수한 제품을 보더라도 자신이 그 제품을 구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일 뿐이다. 상대

의 컨디션을 제대로 파악해 상대로 하여금 그 제품이 왜 필요한지를 어필함으로써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킨다면 그럴싸한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은 성사될 것이다.

선출직에 출마하는 후보가 자신이 그 지역에 왜 필요한 일꾼인지에 대한 자신의 경쟁력과 정체성 및 분명한 설득도 없이 자신이 속한 정당과 유력정치인과의 친분 및 기획된 사진만을 내보이며 선거에 출마하니 당연히 낙선할 수밖에 없다. 정치판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입후보자들이 그렇게 선거에 임하지 않나. 이런 광경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하고 있다.

소통이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소통이란 말을 잘하거나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소통과 강요의 차이는 여기서 나뉘게 된다. 말주변이 없어도 내가 구태여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대한 경계심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나를 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소통'이다. 더불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지름길이다. 이 단순한 논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그런 작은 의식의 전환이 아주 큰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심심찮게 나누는 몇 가지 인사말이 있다. "언제 시 간되면 식사 한번 합시다", "언제 한번 연

락할까요" 등의 말은 영혼이라고는 1도 없는 소리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언젠가는 과연 언제인가. 토끼 머리에 빨날 때쯤 에나 지겨질 약속 아닌가. 말에 대한 책임도 기약도 없는 그것은 말이 아니라 소리 일 뿐이다. 필자는 가끔씩 이런 식의 멘트는 삼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한다. 대신에 "다음 주에 시간이 좀 관찮는데 화요일 점심과 금요일 저녁 중 어느 때가 더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다. 아니라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라고 한다. 이것이 더 진솔하고 깔끔하지 않은가.

어른이 젊은이에게 자신의 인생과 흔적을 하는 것도 상대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잔소리에 불과하다. 명함까지 교환한 사이임에도 상대의 호칭을 정확히 불러주는 작은 배려조차 없는 것도 소통의 부재이다. "내가 말이 좀 많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도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목회자들이 직업상 말이 좀 많으니 이해하세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를 실수하는 경우다. 소통의 부재와 목회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줄 수 있다. 모든 것이 '소통'이라는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소통'이라는 간단하고 흔한 단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소통'과 '불통'의 경계는 한 끝 차이이다. 진정한 '소통'에 대한 고민과 실제적인 노력이 없는 한 우리가 가지는 인간관계와 인격은 모든 것이 허상이 고 거짓에 불과하다. /태일리플러 정치연구소장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중금융감독기구 부주석 등 면담** 금감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북경시 등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장은 중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면담이다. 금융감독기관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금감원



**LH 임직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 점검** 15일 LH에 따르면 박상우 LH사장 등 임직원 150명은 지난 13일 청주 문화산업단지(옛 연초제조장)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방문해 도시재생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이날 임직원들은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뉴딜사업지와 올해 공모 신청한 뉴딜사업 추진현황, 지역별 특화재생계획 등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뉴딜사업을 진단했다. /LH

# 삼성바이오, 저가매수 기회?



**기지 수첩**  
손엄지  
(파이낸스&마켓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주식매수권(콜옵션) 가능성을 공시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적이었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핵심 쟁점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관계회사 변경에 대한 '회계부정' 판단을 유보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무죄 판결'로 보고 있다. 더욱이 가장 우려했던 '상장폐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커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퍼지면서 다음날인 14

일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을 대거 순매수(5393억원)했다. 같은 날 외국인이 순매도(7458억원)한 물량을 고스란히 받은 셈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방식이 여기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투자 격언과 달리 개인들은 뉴스에 사고, 물리는 방식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개인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더욱 맥을 못춘다. 본격 조정장세가 시작된 6월 이후 이달 9일까지 개인이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5.4%였다. 하락장 속 '개미 필패(必敗)'가 또 다시 증명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매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예의주

시하고 있는 기자들도 사건의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증선위의 이번 결론에 대해 "신중을 가장한 책임회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로 장기적인 투자를 할 생각이려면 '저가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증선위의 결과 발표 후 있을 단기적 반등을 기대해 주식을 사들이는 전략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회계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주가는 '저가매수' 기회라고 보기도 어렵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8년 예상 주가수익비율(PER)은 262배 수준으로 업종 평균 PER인 64.04배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sonumji301@metroseoul.co.kr

# 한은, 2018 하계 어린이박물관교실 개최

화폐박물관 견학·경제 강좌 등 진행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은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회(1일과정)에 걸쳐 '2018년 하계 어린이박물관교실'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하계 어린이박물관교실'은 어린이들이 화폐, 경제에 대해 친근감을 느

낄 수 있도록 화폐박물관 견학, 경제 및 체험 강좌, 나만의 화폐박물관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희망자는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참가비는 없다. 단 사회배려계층 어린이가 신청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한다.

/사유리 기자 yul115@



**롯데홈쇼핑, 초복맞아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 금감감독원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북경시 등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출장은 중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고위급 면담이다. 금융감독기관 간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에서 영업 중이거나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롯데홈쇼핑

##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장관실 장관비서관 윤성혁 △철강화학과정 최진혁
- ◆통일부 ◇과장급 전보 △통일교육원 사회통일교육과정 임형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장 이병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 최형주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b>metro 메트로미디어</b>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100206 2002년5월28일 제399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092호

이중규 △건강정책국 정신건강정책과장 홍정익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장 김우중 △질병관리본부 미래감염병대비과장 김유미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장 이상원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최종희

◆교육부 △목포대 사무국장 최승복 △디지털소통팀장 정승화 △교육부(국외협력 파견) 하진혜 △ 명예퇴직 이정문 △감사관실 이광재 △교육부(후직) 조영석 △교육부(국외협력 파견) 성미정 △학생지원국 파견 김기빈

◆병무청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임재하 △병역지원국장 장현서 ◇과장급 승진임용 △대법인 최정호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생활방사안전과장 채희연 △원자력조사과장 김상현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 배종근

◆산림청 ◇서기관 △국유림경영과장 강대식 ◇기술서기관 △법무감사담당관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 김종연 ◇임업연구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권오웅

◆한국중부발전 ◇1직급(을) 승격 예정자 △기획전략처 문화홍보부장 강석중 △발전환경처 발전

운영실장 안성규 △건설사업처 건설기획실장 이웅천 △안전품질처 재난대책부장 문홍서 △신성장사업단 신재생사업처 신재생총괄부장 문상우 △국정과제추진실 부장 김동준 △보령발전본부 기술지원처 연료설비부장 심은구 △보령발전본부 제1발전소 화학기술부장 정재경 △보령발전본부 제3발전소 제어기술부장 서대석 △보령발전본부 복합발전소 전기기술부장 임철규 △서울건설본부 서울복합건설소 계전부장 한필수 △서천건설본부 경영기획부장 여창규

## 부음

▲서울교전 국회의원)씨 별세 =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오전 10시 30분.  
▲김용태(전 금천초등학교 교사)씨 별세, 김석중(현대해상 전무·자산운용부부장)·김형중·김철중(HB테크놀로지 부장)씨 부친상, 최정수(전 한국은행 국장)·김공식(문경시청)씨 장인상, 김선준(산업은행 대리)씨 조부상 = 13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02-3010-2000



**홈플러스,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와 유엔환경계획(UNEP)한국협회 가 함께 주최한 '2018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시상식'에서 내민들이 수상작을 보고 있다. /홈플러스



# “現 중3, 수험부담 커지고, 대학 선발 변별력 줄어들고”

##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EBS 연계 50%로 축소  
연계방식 ‘간접 연계’로 변경  
대학들 “어떻게 뽑으라고” 불만  
논술·정시로 뽑을 가능성 높아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대입준비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모의고사 배치 평가표를 살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EBS 연계 비율이 50%로 축소되고, 연계 방식도 ‘간접 연계’로 바뀐다. 또 현재 12개 대학이 대학별로 치르는 적성고사와 수시 모집에서 활용되는 교사추천서가 폐지된다. 학생들의 수험 부담이 커지고, 대학들은 신입생 선발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중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미포함 과제 논의를 위한 6차 대입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사안들은 지난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 측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교육부 검토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수능-EBS 연계 70%→50% 축소, ‘간접연계’로

우선 수능 EBS 연계율은 현행 70%에서 50% 축소되고, 연계방식도 간접연계로 전환된다. 수능-EBS 연계 출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1

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돼 왔다. 2016학년도 수능부터는 암기식 학습의 문제가 제기되자 영어 영역에 한해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 소재, 요지가 유사한 다른 지문으로 ‘간접 연계’ 출제되고 있다. 개선안은 EBS 연계로 인한 학교 교실의 ‘EBS 문제 풀이식 수업’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반면 농어촌·도서벽지 등 취약 지역에서 수능 시험 대비가 수월하다는 게 장점으로 꼽혀왔다.

교육부는 “EBS 연계를 전면 폐지하기 보단 연계율을 50%로 축소하고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해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고교교육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접연계 출제될 경우 변형된 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EBS 연계율이 줄었다고 해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EBS 교재와 학교 내신 교재를 병행해 공부해야 되고, 여기에 변형된 문제까지 예상해 학습해야 하는 부담감이 발생할 것”이라며 “연계를 축소로 얻는 부담 완화보다 간접연계 방식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적성고사, 교사추천서 폐지… 대학들 ‘학생 선발 근거 부족’

교육부는 아울러 현재 12개 대학이 시행하는 적성고사 또한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 적성고사는 국어·수학·영어 등 대학별 정한 2~3개 과목의 수능시험과 유사한 형태의 객관식 시험으로 대학들은 보통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 내신성적 60%, 적성고사성적 40%를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적성고사는 내신보

다 적성고사 성적의 실질 영향력이 커 내신 중하위권 수험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관문이어서, 내신이 낮은 학생들의 수시 지원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적성고사가 폐지되면 해당 대학들은 학생 선발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논술전형이나 수능 전형인 정시전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가천대학교 이재희 입학처장은 “적성고사전형은 내신 3~5위권에 해당하는 중위권 학생들에게 대입 기회를 주고, 수능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 사교육 유발 요소도 아니다”면서 “적성고사 폐지 방침은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적성고사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사추천서는 대입의 단순화와 공정성 차원에서 폐지가 유력하다. 학생부의 세부능력·특기사항 기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교사추천서는 학생의 장점만 나열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학들의 학생 선발 근거가 더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연세대 박정선 책임학사장은 “공정한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추천서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게 공정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추천서는 허위 기재와 대필 등의 문제가 있는 자기소개서의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이므로 무조건 폐지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보인다”고 제

안했다. 자기소개서는 유지되지만, 기존의 문항당 1000자~1500자의 ‘서술형 에세이’에서 문항당 500자~800자의 ‘사실 기록 중심 개조식’으로 개선된다. 또 대필·허위작성이 확인되면 지금까지 ‘0점 처리’돼 미달시에는 합격했지만, 2022학년도부터는 ‘탈락·입학취소 조치’로 개선하기로 했다.

### ◆일반고·특목고 등 고교 유형별 선발결과 공개

이밖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각 대학의 공통 평가기준과 대학별 중점 평가요소, 모범사례 등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과 연계해 공개하도록 하고, 대입 전형별 일반고와 특목고 등 신입생의 고교 유형별·지역별 선발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예컨대, A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의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 비율이 공개되면, 해당 대학 지원을 고려하는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 해당 대학이 발표한 내신 합격선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 기준으로 형성됐는지 여부를 알 수 있고, 대학 지원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검토안에 대해 대학과 각 교육청의 의견과 온라인 윤교육(www.moe.go.kr/onedu.do)을 통한 여론 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오는 8월 중 발표하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 대학가 소식

### 중앙대 대전 학부모 입시간담회

중앙대학교(총장 김창수)는 23일 오후 12시 30분 대전인터시티호텔에서 대전지역 고교생 학부모 150명을 대상으로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브라운백 미팅은 갈색 종이봉투(Brown bag)에 담긴 다과를 곁한 단출한 회의에서 유래했으며, 행사 참석자들에게도 간단한 다과와 음료가 제공된다.

### 서경대 ‘고등학생 디자인 실기대회’ 20일까지 전시·시상식 개최

서경대학교(총장 최영철)는 지난 13일 오후 교내 해인관에서 ‘서경대학교 제7회 전국 고등학생 디자인 실기대회’ 시상식을 열고 기초디자인 부문 세현고등학교 한호원 학생에게 대상인 총장상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 수상작품은 오는 20일까지 서경대 해인관 6층에서 전시된다.

### 우석대 도로공사 취업설명회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장영달)는 진로취업지원센터가 17일 문화관 아트홀에서 ‘2018년 하반기 한국도로공사 취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지역 청년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 참가 신청은 우석대 진로취업센터(063-290-1948)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 유치원부터 ‘생존수영’… 전국 126곳 시범운영

### 자유영 등 영법위주 수영 아닌 물에서 버틸 수 있는 기술 훈련

교육부는 유아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 5세 유아 대상 생존수영 시범 운영이 전국 126개 유치원에서 10차 시 내외로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생존수영은 자유영 등 영법 위주 수영 교육이 아닌 위급 상황 시 유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보빙(물속에서 바다 차고 점프하기), 도구 없이 물에 뜨기, 도구(페트병, 과자봉지 등)를 활용한 물에 뜨기 등 위급 상황에서 구조자가 올때까지 물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유아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강수영장에서 열린 인천해양경찰서의 생존수영교실에서 참가자가 과자봉지를 이용해 물에 뜨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준에 적합하게 적용 가능한 일반화 모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유아들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에 앞서 16일 경북 구미에서 유치원 생존수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유

아 대상 생존수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워크숍도 연다. 워크숍에서는 물놀이 안전 교육과 함께 유치원별 생존수영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분임토의를 통해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시범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올해 7월 중 전국 유치원에서 물놀이 안전교육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부모 대상 물놀이 안전지침 등의 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통계청이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위는 운수사고, 2위는 질식, 3위는 익사사고로 나타났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아들의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유치원에서의 유아 대상 안전교육 뿐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이번 시범운영을 계기로 생존수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취소…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선발

### 지난해 특별감사서 비리 적발 올해 운영평가서도 ‘매우 미흡’

지난해 설립자 가족의 회계 비리 등이 적발된 서울미술고가 자율학교 지위를 박탈,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자율학교 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확정하고 이 내용을 학

교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미술고는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 교의 운영 평가’ 결과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고,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미술고는 내년 2월 28일까지만 전국단위 신입생 선발과 수업료와 입학금 자율 결정 등 자율

학교 운영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서울 지역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고와 같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2.3학년이 되는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입학 당시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술고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 재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컨설팅과 특별장학 등의 후속 조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

앞서 서울미술고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설립자 가족 간 내부거래 등 학교 예산 부당집행 등의 비리 혐의가 드러난 바 있다. /한용수 기자



희망사회 프로젝트



[ 개인사업자 지원 ]  
 신한SOHO사관학교 1기 이재훈 님

# 희망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작은 식당을 열었는데  
 손님이 너무 없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신han을 만났죠

이제 점점 늘어나는 손님을 보며  
 내일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되는 일이라면

# Hope. Together.

[희망사회 프로젝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통해 모두가 잘사는 희망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한금융그룹 전체가 한마음으로 실천해가는 사회적임경영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소외계층 소득활동 지원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총 2,700억원 지원 예정)

# 02 개인사업자 지원

신han금융그룹은 창업의 꿈을 품고 있는 청년들과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SOHO 사관학교, 성공 두드림 아카데미, 두드림 스페이스 등 다양한 개인사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SOHO 사관학교를 시작해 현재 4기 진행 중, 총 교육이수 인원 120명)



새로 나온 책

### 70년 전 '4김회담' 등 지도자 김구 재조명

올해 상반기 4.27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전환적인 화해국면을 조성했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가 국제관계에 있어 '협상'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전파를 통해 가슴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경험이기도 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남북협상이 꼭 70년 전에도 있었다. 1948년 4월 27일 '김구, 김구식, 김일성, 김두봉' 등 남북의 지도자들이 만났던 4김회담이 바로 그것이다. 그해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지도자협의회는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다시 김구를 부른다 유기홍 지음/와이즈베리

역대 정권에 어떻게 계승됐는지 추적한다. 저자는 "김구가 정교한 사상가도 세련된 정치인도 아니었지만 조국의 독립과 평화통일이라는 신념을 우직하게 지킨 지도자로서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시정부는 결코 어느 한 계급 어느 한 정파의 정부가 아니라 전 민족 각 계급 각 당파의 공동한 이해 입장에 입각한 민주 단결의 정부", "우리 정부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전 민족이 총 단결하여 일본 제국 주의를 타도하고 한국에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립하자는 데 있다". 통일론과 같은 맥락에서, 김구의 임시정부에 대한 정의는 단결을 통한 통일의 의지를 다시한번 증명하고 있다. 324쪽, 1만4000원.

1948년 4월 20일 많은 이들의 조롱과 반대에도 절박한 심정으로 분단만을 막겠다며 38선을 넘고 김일성을 만났던 김구. 그리고 당시 맺었던 남북협상을 이 책은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시대착오적인 침략통일도,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겪었던 독일모델인 흡수통일도 해답이 아니다. 바로 '협상'을 통한 통일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며, 지도자 김구의 통일론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해방공간에서의, 38선을 넘었던 김구를 재조명하면서, 김구의 통일론이 조봉암, 장준하 등과

공백을 채워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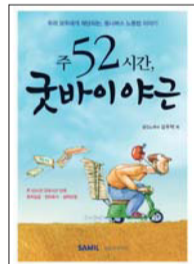
히라노 게이치로 지음/이영미 옮김/문학동네



가장 가까이에서 현대 일본을 쓰는 작가 히라노 게이치로의 여덟번째 장편소설이다. 제관에서 일하던 평범한 삼십대 가장 쓰치야 데쓰오가 어느 날 회사 회의실에서 눈을 뜬다. 순간 자신이 삼년 전 회사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떠오르고,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 미궁에 빠진다. 소설은 죽은자들이 되살아나는 기현상 속에서 주인공 스스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추적한다. 600쪽, 1만5800원.

주52시간, 굿바이 야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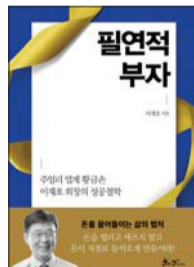
김우탁 지음/삼일인포마인



실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인상, 정규직전환 등 노동법과 관련한 주제를 총망라했다. 소설형식의 총 9가지 에피소드로 저자인 공인노무사가 전문적인 해설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또한 20여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변화과정을 고찰해 개정 노동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20대 청년실업자, 취준생, 30대 기혼여성, 40대 자영업자, 50대 중장년 재직자 등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인물들을 통해 노동법의 이슈를 설명한다. 256쪽, 1만5000원.

필연적 부자

이재호 지음/뽀네파커스



한국 주얼리업계의 입지전적인 (주)리골드 창업주 이재호 회장이 출간한 책이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열일곱엔 백화점 종업원이 됐던 가난했던 그가 어떻게 귀금속 소매점을 창업하게 됐는지, 30대 이른 나이에 큰 돈을 모았지만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마주해야 했던 그가 어떻게 삶의 가치관을 바꾸게 됐는지를 보여준다. 책에는 저자가 깨달은 부의 원리와 행복하게 도전하는 삶을 만날 수 있다. 272쪽, 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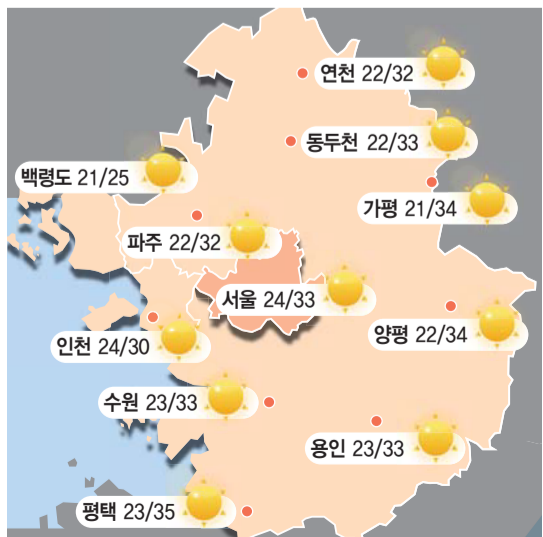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3 | 해짐 / 19:53

7월 16일  
음력 : 6월 4일

수도권 날씨  
33~24°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 '출루의 달인' 추신수, 50경기 연속 출루

베이브 루스와 어깨 나란히  
MLB 전설 사이에 이름 올려

'출루의 달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50경기 연속 출루 고지를 밟았다.

추신수는 지난15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오리올 파크 앳 캠프 야드에서 열린 2018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방문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1회초 첫 타석에서 예프리카미레스를 상대로 볼넷을 골랐다.

5월 14일 휴스턴 애스트로스전을 시작으로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출루 행진을 이어가는 추신수는 1923년 베이브 루스(뉴욕 양키스)가 작성한 개인 최장 연속 출루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중전 아시아 출신 선수 최장 기록(중전 스키치 이치로 43경기), 텍사스 구단 단일시즌 기록(중전 홀리오 프랑코 46경기), 현역 빅리그 신기록(중전 엘버트 푸홀스·조이 보토 48경기)을 차례로 넘어선 추신수는 이제 MLB 역사



/연합뉴스

속 전설 사이에 이름을 올린다.

1915년 타이 콥(디트로이트 타이거스)과 1943년 스탠 뮤지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세운 55경기 연속 출루가 가시권에 들어왔고, 1998~1999년 데릭 지터(뉴욕 양키스)와 2003년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57경기 연속 출루 기록도 멀지않았다.

이 부문 메이저리그 최장 기록은 '마지막 4할 타자' 테드 윌리엄스가 1949년 보스턴 레드삭스 소속으로 수립한 84경기다.

추신수는 연속 출루 출근부에 '도장'을 찍은 뒤 부담 없이 상대 투수를 괴롭혔다. 3회 선두타자로 등장해 두 타석 연속 볼넷을 골랐고, 5회에는 루킹 삼진으로 물러났다. 두 타석 모두 풀카운트 대결을 벌였다.

추신수는 0-1로 끌려가던 8회 선두타자로 나와 마이클 기번스를 상대로 올 시즌 100번째 안타인 좌전 안타를 때려 뒤 대주자 이시아 키너 팔레파와 교체됐다. 2타수 1안타 2볼넷으로 활약한 추신수의 타율은 0.290(345타수 100안타)으로 소속 올랐다.

그러나 텍사스는 추신수의 3출루 활약을 살리지 못한 채 0-1로 쳐 시즌 55패(41승)째를 당했다.

상대 마운드에 틀어막힌 텍사스는 6회말 요나탄 스토프에게 결승 히팅플라이를 내준 뒤 만회하지 못했다.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 텍사스의 0-1 패배는 이번 시즌 처음이다. /연합뉴스

## 한국 vs 독일, 러시아 월드컵 명장면 2위

후반부 추가시간 득점 터져나와  
최고의 명장면은 벨기에 vs 일본

한국이 세계 최강 독일을 물리친 것이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전체를 통틀어 명장면 2위에 올랐다.

미국 야후 스포츠가 이번 대회 18개의 명장면을 추려 발표한 가운데 한국이 조별리그 F조 3차전에서 독일을 2-0으로 꺾은 것은 2위에 올라 이번 대회 최고 하이라이트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았다. 야후 스포츠는 '독일은 스웨덴과 2차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했고, 다음 상대 한국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러나 후반 추가 시간에 세상을 놀라게



독일 공격수 토마스 뮐러(오른쪽)가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 한국과의 경기에서 0대2로 패한 뒤 허탈해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동시에 진행된 스웨덴과 멕시코 경기에서 스웨덴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독

일은 반드시 이겨야 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 한국의 득점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야후 스포츠는 '한국의 골은 처음에 오프사이드로 잘못된 판정이 내려졌는데 비디오 판독을 통해 바로 잡혔다'며 '이후 독일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까지 골문을 비우고 공격하려 나왔지만 오히려 손흥민의 추가 골이 나왔다'고 한국의 극적인 승리 순간을 재현했다.

이 결과로 독일은 탈락했고, 멕시코 사람들은 모스크바 시내를 행진하며 한국 사람들을 어깨에 올려놓고 즐거워했다. 이런 장면은 월드컵에서만 볼 수 있는 미친 광경이라고 야후 스포츠는 평가했다. /연합뉴스

## 영릉·세종대왕역사문화관, 8월까지 특별 개방

오전 9시~오후 6시30분까지  
6주간 휴관일 없이 매일 개방

경기도 여주에 있는 효종대왕릉인 영릉(寧陵)과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이 16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6주간 휴관일 없이 특별개방된다.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여름 휴가 기간 중 휴관일인 월요일에도 효종대왕릉인 영릉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이처럼 영릉과 지난해 새로 개관한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함께 6주간 휴관일없이 개방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세종대왕역사문화관에는 세종대왕과 효종대왕 그리고 조선 왕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세종대왕께서 후손에게 남긴 훌륭한 업적들과 그 업적의 바탕이 된 애민 정신을 느껴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돼 있다.

다만, 이번 특별개방 기간 중 세종대왕릉인 영릉(英陵)과 세종·효종왕릉 간 연



여주 효종 영릉(사적 제195호). /문화재청

결되는 '왕의 숲길'은 원래대로 월요일에 개방하지 않는다. 세종대왕 영릉(英陵)은 유적종합정비공사로 인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관람이 제한되며, 봉분이 있는 능침구역만 효종대왕 영릉(寧陵)과 연결되는 '왕의 숲길'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세종대왕릉은 이번 특별 개방에서 제외됐으나, 세종대왕역사문화관을 통해 세종대왕릉을 보지 못하는 관람객들은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언뜻  
숫아라 숫아올라라 네꿈..  
환하게 빛나야 할  
내 삶이여, 네 꿈이여..

/고흥근 작



# 서울시장의 옥탑방 ‘한달살기’... 서민 삶 정책에 반영

(9평·강북구 삼양동)

### 이달 중 임시숙소 마련해 입주 시청 출퇴근·주말도 동고동락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달 안에 강북구 삼양동의 한 옥탑방에 임시숙소를 마련하고 한달살기를 시작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살아보며,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보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행정과는 최근 박 시장이 한 달간 임시숙소 겸 집무실로 운영할 공간으로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실평수 아홉 평 짜리 옥탑방을 월세 계약했다. 박 시장이 머물 옥탑방은 1층 단독주택의 옥상에 위치해 있다.

박 시장은 이미 3선 시장 취임 후 강남북 균형발전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은, 시장의 책상이 아닌 시민의



박원순 서울시장.

/ 손진영기자 son@

삶의 한복판에서 가능하다”며 “먼저 강북에서부터 시민들과 기거하며 동고동락하겠다. 현장 출퇴근 물론이고 지역주민과 속삭이 함께 하며 눈물 나는 시민들의 삶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박 시장이 입주할 시기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박 시장에게 보고되고, 결재가 이뤄진 뒤 이르면 이달 안에 입주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통해 주민들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또 틈나는대로 이곳에서 서울시청으로 출퇴근하며, 주말에도 가능한 동네에 머물며 시민들을 만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삼양동은 구릉지에 위치하며 서울시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대표적인 곳으로 꼽혀, 박 시장이 직접 주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큰 곳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있는 곳 맞은 편 미아동과는 다르게 삼양동은 다세대·연립 주택이 뻗어 들어차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들도 많다.

박 시장의 삼양동 한달살이에 강북구도 반기는 분위기다. 강북구청장은 삼양로에서 우이동까지 고도제한이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박 시장

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 시장이 주민여론을 직접 듣고자 현장에 거주하며 시정을 구상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선 5기 취임 1년만인 2012년 11월에도 박 시장은 은평뉴타운 미분양 아파트에서 9일간 현장시장실을 꾸린 바 있다. 그곳에서 주민들로부터 미분양 고층과 교통개선 요구들을 듣고 해법을 모색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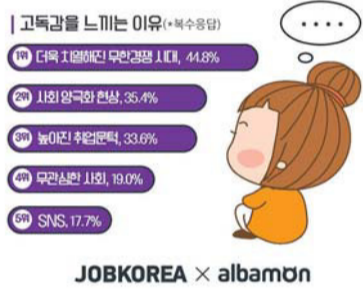
박 시장은 지난 민선 7기 서울시장 선거에서 공약사항으로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공약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두루두루 좋아질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을 24만호로 추가 공급하고,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은 다시 서민의 집을 위해 쓸 것”이라며 “우리 동네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을 더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오진희 기자 valere@metroseoul.co.kr

## 대한민국 20대 10명중 6명 “고독하다”

### 고독지수 77.6점... ‘매우고독’ 15% 이유 ‘무한경쟁’ 45% ‘양극화’ 35%

### 대한민국 20대 고독지수 77.6점

※ 20대 남녀 4,261명 대상 조사. 자료조사: 알바몬



사한 결과, 100점 만점 기준에 평균 77.6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지수는 남성(78.1점)이 여성(77.4점)보다 다소 높았다.

이들이 고독감을 느끼는 이유(복수응답)로는 ‘다들 치열해진 무한경쟁 시대 때문’(44.8%)이 가장 높았고, 이어 ‘흑수저 Vs 금수저 등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35.4%),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높아진 취업난’(33.6%), ‘타인에 대한 무

관심이 만연한 사회’(19.0%), ‘SNS 등 온라인 중심의 인간관계’(17.7%), ‘나를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팽배’(16.3%),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3.1%) 등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 고독감으로 인해 겪는 증상(복수응답)으로는 ‘자주 공허함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낀다’(63.7%)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다’(35.7%),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두렵다’(26.0%),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우울하다’(25.7%),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18.8%)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고독감으로 인해 겪고 있는 증상들은 성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10.2%p 높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우울증’(5.4%p ↑), ‘대인관계 기피’(3.8%p ↑) 증상이 높았다.

/한용수 기자 hys@



“어린이들 위해 ‘교통안전 벽화’ 그려요”

15일 서울 동대문구 푸른하늘어린이집에서 내·외국인 학생들이 교통안전 벽화 그리기를 하고 있다. 이날 교통안전 벽화그리기는 범칙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CPTED)의 일환으로 고려대 자원봉사단, 고려대 외국인 교환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

## 서울시, 50+세대 ‘마을기록가’ 모집

### 29일까지 서울시50+포털서 접수

서울시가 ‘우리마을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50~60대 ‘마을기록가’를 모집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가 인생 경험을 발휘해 무무형의 다양한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기록가치를 보존하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50+마을기록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50+마을기록가’는 서울시가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마을기록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장하고 지원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양질의 사회공헌형 50

+일거리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재단은 그동안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협)아카이빙네트워크 연구원과 지난 3월부터 기획회의 및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오는 19일에는 이들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후 본격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50+세대는 오는 29일까지 서울시50+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모집정보 역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만 50세부터 만 67세까지의 서울시 거주자 또는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인 사업자등록증 상대방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 /오진희 기자

## “우리동네 정책·예산 주민들 참여해요”

### 서울 26개동서 주민자치회 시범 시행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지원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갖는 동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가 개최된다.

서울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시행 26개동에서 지난달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주민총회를 열고 최종 실행할 자치계획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단순 참여·자문 기구에 머물렀던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진화시킨 것이다.

자치회는 자치회관 운영과 같은 행정권, 주민참여예산안 수립과 신청에 관한 예산권,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개최 등의 계획수립권 분야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

시범시행 26개 동은 지난 6개월 동안 주민자치회에서 분과별 토론회를 거쳐 생활의제를 선정했다. 주민총회 투표를 통해 최종 실행의제가 선정되면 실행 가능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봉구 방학3동 주민총회 투표 모습.

/서울시

시는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현재 활동 중인 주민자치회 위원 수는 평균 약 43명이다. 이중 16%가 4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별 6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약 11명의 위

원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며 “시는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서울특별시 안전상 후보자 추천·접수

### 10명 추천 필요... 오는 10월 시상

서울시가 재난 및 안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게 주는 ‘서울특별시 안전상’ 후보자를 다음달 24일까지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생활 속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안전을 위해 애쓰는 시민 또는 단체로, 공고일인 지난 12일까지 서울시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접수된 수상후보자는 현장

실사 및 공적사실 조사를 거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상식은 오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은 개인 또는 행정기관과 등록된 민간단체가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0명 이상의 추천서명이 필요하다. 추천서 및 공적조사 등 추천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오진희 기자





[유통]  
CJ제일제당  
'The더건강한 햄'  
메가브랜드로 키운다  
니



Life

[라이프]  
박원순 시장  
옥탑방 한달살기  
주민 고충 체험한다  
L7



# 출범 9개월만에 61개 항공사-1400개 여행사와 파트너십 계약 단체항공권시장의 에어비앤비 “새벽잠 잊은 보상이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올원에어  
김수연 이사

소규모여행사·항공사 연결해주는  
단체항공권 매칭 플랫폼 만들어

새벽잠 포기하고 시스템 개발 몰두  
런칭 후 폭발적인 반응, 계약으로

수요자로 중심 바꾸는 것 목표  
없어서는 안될 플랫폼 만들 것



10일 오전 메트로신문과 만난 김수연 이사는 올원에어의 최종 목표는 “공급자 중심의 단체항공권 시장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레카(바로 이거야!)”

지난 2016년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처음 접한 김수연(44) 이사는 깜박한 속이 뻥 풀린 기분이 들었다.

20년 넘게 항공권 유통 업계에서 일해 온 투어 비즈니스 전문가인 김 이사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터였다.

그가 담당하던 단체항공권 발매 업무는 말 그대로 ‘노가다’ 작업이 주를 이뤘다.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예약할 수 있는 개인항공권과 달리 단체항공권은 자동화된 발권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보 능력이 없는 중소 여행사들은 항공사에 단체석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소규모 여행사들은 발권 허가를 가진 대형 여행사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고 사정해야 겨우 단체 항공권을 받을 수 있었다. 부르는 게 값이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물량 확보도 쉽지 않았다.

지난 10일 기자와 만난 김 이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에어비앤비처럼 소규모 여행사들이 항공사와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다”고 말했다.

◆잡스·워즈니악, 두 명의 스티브가 만나

“아이디어 넘치는 애플의 기 획자 스티브 잡스가 된 것 같았다. ‘이제 워즈니악에 플이개 발자)’

만 찾으면 되겠군’이라고 생각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그앞에 귀인이 나타났다. 단체항공권시장의 특수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가격 결정 플랫폼 업체의 이정갑 대표였다.

이 대표를 만난 김 이사는 단체항공권 매칭 플랫폼의 시스템 구현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올원에어 개발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프로젝트 합류 이후 김 이사에게 새벽은 잠자는 시간이 아닌 개발진과 함께 시스템 구축에 몰두하는 시간이 됐다.

개발 과정 중 어려웠던 점을 묻자 김 이사는 “현장에서 느낀 불편한 점에 대한 문제 인식, 그리고 이를 위한 솔루션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세상에 없던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일하기에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특히 항공권은 수 천 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있어 이러한 변수를 모두 시스템에 반영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답을 찾아야 할 이유가 분명했기에 지치지 않고 달려왔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1일 업무 미팅 7회... 24시간이 모자라  
플랫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런칭 후 김 이사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새벽 6시 30분. 출근 직후 김 이사는 영업팀의 전날 여행사 업무 상황을 보고 받는다. 이어 사업본부 팀별 미팅을 하고, 개발실·디자인실·기획실과 현재 영업 상황 및 실적을 공유한다. 이후 서비스 품질 관련 특이사항, 파트 별 지원 요청사항 등을 확인하는 3건의 사내 미팅으로 오전을 마무리한다. 오후에는 항공사와 여행사 등 업계 담당자들과 3~4건의 미팅이 이어진다.

김 이사의 열정 덕분이었을까. 올원에어는



올원에어가 자랑하는 사내 문화 중 하나인 ‘수습해제 기념행사’는 수습을 마치고 정식으로 가족이 된 직원에게 축하의 의미로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를 만들어 선물하는 행사다.



10일 오전 6시 50분. 김수연 이사가 영업팀으로부터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런칭 9개월 만에 61개 항공사, 1400개의 여행사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창업 1년 후 살아남을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김 이사에게 올원에어의 성공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일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성과가 높아진다”고 답했다.

김 이사는 “성장하는 회사다 보니 근속자보다 새로 합류한 직원의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그러다 보니 누구도 권위를 내세워 틀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구성원 개인이 자발적으로 만든 소소한 이벤트들이 다수의 호응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사내 문화로 정착한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올원에어가 자부심을 갖는 사내 문화 중 하나는 ‘수습해제 기념행사’다. 수습

을 마치고 정식으로 가족이 된 직원에게 디자이너들이 축하의 의미로 사진이 들어간 포스터를 만들어 선물한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됐다.

김 이사는 “보통 회사에서는 장기 근속자를 기리는 행사는 많은데, 신입 직원을 위한 행사는 없다”며 “외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자랑스러운 사내 문화 중 하나다”고 소개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김 이사는 “올원에어의 목표는 공급자 중심의 단체항공권 시장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공권 시장의 각 주체를 긴밀히 연결해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